# 朝鮮日報

本紙六面

定價 一個月 金七十錢 六個月先金 ...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 論說 中國民의 階段的 成功 —會審衙門還收를보고—

一

再昨年以來 中國政府와北京外交團及上海領事團사이에 交涉과審議를거듭하든 上海會審衙門還收問題는 지난二十八日外交團會議에서 中國에還附하기로確定되여 『江蘇省當局은 上海共同租界에原有한 會審衙門의代로 臨時法院을設置하야 各國領事裁判權에屬한以外의租界內民刑事를審議한다』는等의九個條로作成한 協定의公文을이미交換하고 新年一月一日부터豫定대로引繼하게되엿다 그러면今年一月一日은 中國史上에새로운記錄의하나를 더하는날이라하겟다

二

政治的經濟的또그밧게무엇으로든지 國際的屈辱과强迫을겹겹이 바더오든中國으로서 司法權을完全히獨立시키지 못하는上海의 臨時法院을新設하야 會審衙門을還收하는것이 무슨그리큰 光彩가나는것이라마는 그와가티回收하게된 過程을돌아다보면 時代의生存的意識을確實히깨다른 中國의國民運動이 列國의 帝國主義的侵略政策을排斥함으로부터 一九二三年一月一日에 外國의 通信機關을撤廢한것은 國際解放의 第一步를 내드딘것이오 一九二七年인 今年一月一日에 會審衙門을還收한것은 그의第二步를내드딘것임으로 그와가티勇往邁進하면 그부서운國際的壓迫下에서 完全히解放될날이멀지아니하얏다는意味에잇서서爲하야熱情的祝意를表한다

三

中國上海共同租界의 會審衙門이라면 中國의唯一한屈辱的標本이다 阿片戰爭의結果 一八四二年곳淸宣宗道光二十二年에 所謂南京條約을締結한것도 中國의恥辱이적지안흘 것이지마는 그條約의結果 廣東 廈門 福州 寧波 上海의 五港을開放하고 上海가튼新租界內에서는中國人의 專屬한民刑事라도 中國司法官이獨斷으로處理하지못하고 中國에領事裁判權을둔列國司法官과 中國司法官이會同審判하는자리에도 中國司法官은 總備가티參席만할뿐이오 制決의全權은外國司法官이專擅하는 非常스러운合同制의會審衙門을設置하고 가장中國民의强壓으로더하야 八十五年의支離한星霜을 지난것은 中國民의記憶에갈수록 새로운바일것이다

四

그러다가지난一九二五年곳民國十四年봄에 上海內外棉의罷業騷擾事件을審理함에도 無理한高壓手段을부리어 工部局警官이中國學生을 忌憚업시射殺하는 五月三十日의南京路流血慘事를釀致하얏스니 中國民도血性이잇는人間이어든그와가튼非人道的行動을그대로보자고할것은必然한事勢이다 그것으로말미암아 勞働界 商業界 學生界가聯合奮起하야 上海의總罷業을斷行하고 이어서帝國主義의强權을물리치라는排外 排日의 運動이全中國에 擴延함을따러 그의禍因이되는 會審衙門을還收하자는 物議가沸騰하야 中國側의提案으로北京外交團과上海領事團사이에 調査와審議를거듭하엿다 그러한中國人의要望을 못거지拒絶하면 그가티한일에나는排外運動을制止할可能이업스리라는 생각으로 지난九月下旬에 十六國領事의調印이잇섯고 中國側으로부터協定大綱을發表한것이 畢竟完全히中國側에引繼하는 最終의 成果를보앗다

그러면이러한回收의成功은만갓會審衙門하나에 그치는것이아닐것이다 中國의國民的革命이北伐의大功績을나타내이는오늘에잇서서 關稅附加稅의實施도對英中에잇고 司法權의獨立도이러한潮流의途程을 밟어나아가는것을보면 萬般의軍閥의暴戾的行動도 거리낄것이업고 列國의壓迫한政策도두려울것이업고 國民運動의 階級的成功이 新中國의主權을完全히獨立시키는 總決算을빗나게나타내일날이 반듯이 잇슬것을疑心안는同時에 또그것이한갓中國의解放에그치는것이 아니라모든被壓迫國民의 先驅가되어世界的革命을 實現하는基礎가서가는것으로밀해둔다

## 勞農露西亞 南政府承認準備 時期는上海占領한直後 駐中大使候補는「토로츠키」氏

(北京三十一日電) 莫斯科政府는中國南方政府의承認을準備하는데그時機는南軍이上海를占領하는直後로豫定하고駐中大使는手腕과閱歷이豊富한首領級인『토로츠키』氏가第一候補者라더라

## 카라한氏露都出發

(哈爾濱三十一日發) 東鐵勞農側에達한確報에依하면廣東政府武昌移轉에伴하야駐任中인『카라한』大使는近近莫斯科를出發하야海參威經由武昌으로赴任하리라는데이가티되면廣東政府의正式承認其他의政策은速히具體化하는것이라고觀測되더라

## 英國政府의 對米覺書內容 關稅會議中交換한文書 北京英國公使館에서發表

(北京三十日發) 關稅會議中止可否에關한米國政府의照會에對하야英國政府가去五月二十八日에米國政府에回答한覺書全文은當地英國公使館에서發表하엿는데그大略은左와如하더라

北京交涉에英國公使館의脫退할것을希望한北京英國公使館의報告는明白히誤報에基因된듯하다英國政府로서는關稅會議를中止하려는意思는全然히업고오직夏期數個月間關稅會議의會合을中止할問題는考慮될것이라하얏다그러나此種의休會는現在의政治的狀態로보아서當初의意思보다遷延되는感이잇는外닭에

英國은 이러케 短期休會를하는것보다먼저華盛頓會議에서協定한諸約束을整理하기를希望한것이다不確實한公債의整理問題에關하야는倫敦政府와北京英國公使館과사이에어느程度까지의意見이交換이되엿스나이點에關하야英國代表의取한態度가誤解를사게된것은疑心아니할수업다英國은當初부터不確實한公債의整理에關한엇더한案을關稅會議의一部分으로하야中國政府에强要함에는反對하엿섯다따라서그후에이問題에關하야는反對하엿섯다그러나英國은此問題에는非常한難關이追到치안흘가恐懼하는바이라고하야中國의關稅收入의一部를不確實公債의整理에充할義務를負할것을不辭하는同時에公債整理의

細目案 이關稅會議에서問題되는것에同意를拒絶하는바이다然하야英國政府는熟慮한結果不確實公債整理問題에關하야는中國政府가提出하고列强이贊成한案을關稅會議에서討議함에同意하기로決定한것이다그러나中國에對하야不確實公債整理를爲하야共同意見을程度以上에收入의

## 諸誓約 의實務는遷延식

更하엿다

今日中國政府의意思에反하야此種의保障獲得을固執함은結局華盛頓會議에在한確實公債整理案을强制하고또는中國의不確實公債를保障하는것이明白하다 그러나이와가튼보든誓約의實行을뒤로미루고中國의關稅收入의列强管理權을擴大함과가튼것은米國及英國政府의意思에反하는바가아니면부인가英國政府로보면中國政府의見解로하야금新收入使途에關하야何等의理由가잇는確言을與할時에는列强管理强制又는保障强要의企圖는中止하고卽時附加稅의徵收를承認할것이라고생각한다英國은以上과가티英國

一中國은變化의過程中에잇슴으로어떠케變化될는지알수업고뜰아서列國의對中態度는決定할수가업다 南北戰爭의結果가如何히될는지는누구나豫見할수업고또廣東政府가全中國을預定하기前에또는同政府의前에同政府는承認할는지는明白치안키前에同政府가承認할는지는생각할問題다 이와、는現狀에서北京과廣東과를同時에交涉할수잇스리라고생각하는것은큰差誤다

## 中國을 正義로待遇 對等的基礎우에서 米國쌔라氏年頭辭

(華盛頓一日發) 亞米利加上院外交委員長『보다』氏는合同通信社에對하야特別한年頭辭를發表하야中國에對한列國의態度가變更될것이만흔것은가장歡迎하는바임으로이것의實現은新年에가장重大한事件이라한다中國의進步的分子는共產主義者라고指摘하얏스나이저는國家主義者로指摘함이適當하다 從來의武力政策을發現함이萬難의障碍이잇슨以後로步調가겨우一步를進步하얏다이저吾人은武力의代에對等的基礎우에서正義로써中國을待遇하기를努力함이必要가잇다고斷定하고『보다ㅡ』氏는또다시輿論은世界의意見이이저어떠면가우려지는것은看取하야適當히措置할것을主張하얏더라

## 日佛意見一致

(倫敦一日發) 『데리텔크라프』紙의外交通信員이巴里에서探聞한바에依하면中國問題에關하야佛蘭西外務長官『색리앙』氏가日本大使石井子爵과會見한結果中國關稅附加稅其他에關한英吉利의覺書에對하야日、佛兩國의見解는全然一致하게되엇다더라

## 英國의輿論

(倫敦二十八日發) 今日의朝刊諸新聞은二十六日에發表된英國의對中新政策에關하야 種種의論評을 하고잇는데『모닝포스터』紙는『今般에 發表된英國의覺書는中國에對한英國의政策을明瞭히하는同時에關係列國에對하야英國과一致한態度를取하기를懇請함이다英國政府는右覺書中에서

受할것을信하기를마지안는다

從來의廣東國民政府의各種行動은그目的이中國의獨立이라는正當한希望을表現하는것이라고英國政府는恒常同情을表하고잇다 ... 英國은 ... 諸原則을숨김업시告白하엿슴으로볼수잇다』하엿고『데이리·테러그랍』紙는『今番發表된英國의覺書는北京에서의關稅會議의經過를敍述하야實로無益하엿다實로關稅會議의主要精神은救拾할수업는程度로破壞되엿다關稅會議는不幸히中國과諸外國과의關係를疎隔식히엿슴에不過하지만目下各國間에存在하는私慾과誤解를除去치안는限에는此狀態로永久히繼續되리라고볼수밧게업다』하엿다 또『데이리·크로니클』紙는

「今番英國政府의 發表한覺書는英國의對中政策에關하야 ... 한誤解가풀리고또中國에서의排英思想이一掃되기를바란다」 고하엿다더라

## 元朝祝賀 朝覲禮模倣 大和殿에서

(北京三十日發) 張作霖氏는三十日午後에安國軍總司令의名義로各國公使를訪問하고午後三時半에芳澤公使를訪問하엿다가三十分後에辭去하엿다 元旦에는張作霖氏는皇帝의朝覲禮를倣하야紫禁城內大和殿에서一般官民及外國使節의年賀를밧기로되어萬端을準備中이라더라

(北京一日發) 外交團은顧維鈞氏의請待에依하야一日午後四時半外交部에赴하야張作霖氏에게新年의賀禮를올이엇는데各國公使를비롯하야各閣員、元老、將軍諸僚多數는出席이盛大하얏더라

## 英國關稅案 佛國不賛成決定 南北戰勝敗難測으로

(巴里廿九日發) 佛國政府가英國의新對中政策에贊同치안키로決定하엿슴은二十九日의新聞紙에依하야大體로贊同을어덧다外務省機關紙『단』은上記決定의意義를明確히하고佛國이贊成치안흠은原則으로反對함이아니요時期尚早로써、하고理由를說力하야

## 萬縣事件被害 調査報告

(北京三十一日發) 去八月末의四川省萬縣事件의現場調査로派遣되엿든中國側海軍委員이去三十日外交部에詳細한報告書를보낸것에依하면英國砲艦『코쓰크체후와』號가萬縣을砲擊함으로부터中國側이蒙한犧牲者는死者二百二十七人、負傷者二百二十七人、損害가二百六十萬圓인데北京政府는그報告書를基礎삼아英國側과交涉한다더라

## 日米戰爭說로 米國海軍을煽動 油田疑獄에關聯하야

(華盛頓二十九日發) 日米戰爭을背景으로한『도헤니、 豊』兩氏에關한油田疑獄事件의公判은結果兩氏共히無罪釋放이되엿는데今回右事件은下院海軍委員이다시調査하기로되엿다이에關하야二十九日海軍委員代表者『마쿠린치쿠』氏는記者에게左와如히語하더라

海軍委員은海軍卿『월바』氏에對하야太平洋의所謂日米戰爭에關하야海軍의情報를要求하엿스나『월바』氏는此를拒絶하엿다 그다음 海軍委員은『월바』氏에게對하야 數年前『쿠리비스』提督의亞細亞艦隊司令官時代日本의挑戰的態度가問題가된外에 提督의報告를提出할것을要求할것이다

그런데이要求는 海軍委員長『바토다』氏가米國海軍과日英海軍과의公定比率을維支하기爲함이라고稱하고輕巡洋艦十隻建造案을提出함에對하야秘密會議에서 審議하엿슬때에『월바』氏에게提出한것이다 余가海軍當局이『구리비스』提督의報告에對하야는日本의挑戰的態度云云에關하야는何等記述한바이업슴으로 提督의報告를 海軍委員에게 提示하기를 拒絶하엿는데此는 油田租借問題와 布哇에在한眞珠灣의石油貯藏所建設問題에關한海軍省秘密政策의暴露를恐懼하는外닭이라고 看做치안흘수업다實際上余의보는바에 依하면所謂日米戰爭이라는것은海軍省이米國民을煽動하야四億萬乃至五億弗을要하는 一大海軍擴張案通過를便利케하려는것이다

海軍上官『윌바』氏는語하여日『下院議員『마쿠린치쿠』로부터個人으로서海軍省의機密情報를提示할것을要求한外닭에此를拒絶한것은事實이다實際上氏는海軍委員을代表하야右의要求를試한것은아니다 海軍省은『푸·도·베니』事件을裁判할때에도右情報를裁判所에提出할것을拒絶한것임으로下院海軍委員으로부터要求가잇더라도此를拒絶할것은勿論이다目下輕巡洋艦十隻建造案은審議中인바 海軍은豫算以內에서하여갈터이다 그러나海軍省으로서는英國과同勢力의海軍을가즈려고할것가트면 二十二隻의巡洋艦이새로히必要한것을下院海軍委員에게通知하여두엇다』

## 豫西戰事益告急 洛陽의人心이大驚動

(洛陽三十一日發) 現在隴海鐵道는겨우鄭州에서洛陽外지만往來하고洛陽以西는確實히杜絶하얏는데澠池一帶의鐵路는戰事의猛烈로모다軍隊의撤毀가되고新安과洛陽사이에鎭嵩軍은一萬人이나國民軍의襲擊을바더서澠池에退却하얏는데彈丸이缺乏하야每人에十發의彈丸을가짐에지나지못함으로澠池도守備하지못하게되니洛陽의居民은크게驚動되어營業은停止되고開封方面에移住하는사람이陸續하얏더라

## 孫傳芳軍이 浙江完全奪還 孟昭月이總司令就職

(上海卅一日發) 孟昭月、王森、彭德銓이去二十三日夜에浙西各地를鎭消하기로決 結果孟昭月은富陽을進攻하야韓光裕로前鋒을삼고王森은嚴溪、桐廬를進攻하고彭德銓은屯溪를進攻하는데그翌日에孟軍이드듸어富陽을占領하얏슴으로孫傳芳은孟昭月로써浙江總司令을任命하야盧香亭의後任이되게하니孟은다시杭州에돌아와서就職하고浙江의治安을維持한다더라

## 錢塘江岸兩軍戰

(上海三十一日發) 二十六日午前三時에孫軍이浙江省西興附近에서錢塘江을건너고南軍과交戰하얏스나渡江한孫軍이一營에지나지못함으로곳着手를하지못하고對岸에잇는데杭州市內에는各店鋪를一切緊閉하고人心은洶洶하다더라

【備考】 西興은杭州東南二十里의錢塘江岸

## 英敎師引退令

(倫敦一日發) 此際充分한保護를與하는것은困難함으로英吉利政府는廣西省의內地에잇는英吉利宣敎師에對하야安全地帶에引退하기를命令하얏더라

## 附屬地家屋 所有者激增

(奉天三十日發) 吉林督辦張作相氏가千代田通에家屋을所有한以外에中國側文武官으로附屬地에家屋을所有하려는者가最近顯著히增加되엿다이現象은政治的意味가多量으로包含되어잇다한다熟河都統湯玉麟第十一師團長趙恩臻의諸氏는千代田或은彌生町附近에適當한家屋을物色中

은中國側의課稅問題에刺戟되어附屬地를中國商人化하게되리라고豫期된다더라

이다또城內의互商等은店舖를附屬地에求하는者가만코이대로간다면今後中國商人의附屬地進出

## 大洋問題로 命令撤回 領事團이要求

(哈爾濱三十一日發) 大洋問題에對하야日英佛伊等關係領事團은三十日日本總領事官邸에協議會를開하고中國官憲이前不發表한暴令은北滿洲財界를擾亂하는것이라는見地에서首席領事로부터張行政長官에게對하야그命令을撤回할要求를하기로決하엿더라

## 不信任案의理由 政友會는提出할생각

(東京電) 政友會幹部間에는討議會政策에對하야되도록速히不信任案을提出함이有利하다는意見이가장有力한데그理由는(一)政府로서는議會解散이그의唯一한生路인데御大喪이지난다면곳解散을斷行하게되겟슨즉그前에不信任案을提出함이野黨으로서當然히取할作戰이오

(二)不信任案通過의明白히보인다면政府에서議會의停會를命할는지알수업슨즉될수잇는대로停會에서御大喪外지의日數를만케하야解散을기달일수가업시總辭職케하게함이有利하것

(三)或은政府에서御大喪前이라도解散을命할는지알수업지만그러케된다면不謹愼과濫용

## 小作法案 骨子決定

(東京電) 農林省에서는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農相官邸에小作立法에關한今年最後의省議를開하고町田農相阿部次官以下農政及法令에關係인各關係官이出席하야

一、小作法案
一、小作調停法中改正法律案
一、永小作權의整理에關한法律案

等三案에對하야審議한結果十一月初旬以來繼續審議하여온바에依하야其立法方針에따라小作調査會小委員會案에依할것인가或은同時特別委員會修正案에依할것인가에對하야終始意見의一致를보지못하엿다小作法案中重要點即

一、小作權의讓渡
一、小作權의先買
一、小作權의繼續及消滅
一、小作料의一時的減免

의諸點에對하야는町田農相의裁斷에따라特別委員會修正案에依하기로決定하고午後六時半에散會하엿는데이로써小作法案決定의難點은除去되고骨子의決定을보앗슴으로明春早早에法文을整理하야新後의省議를開하고確定한後에速히司法省과合議하야可成的一月中에는議會에提案할意嚮이더라

## 丁卯胡亂史論(中) ◇……文一平

### 四、朝鮮向背가大勢를決定

歐洲大戰에 白耳義의獨逸에對한그頑强한抵抗은「카이저」의그勝利胸算으로 하여금 거의水泡에 돌아가게 하엿거니와 當時東洋의 白耳義이든 朝鮮이만일丁卯胡亂에잇서서 金人에게對하야 容易히屈從치아니하엿스면 적어도汗의預定計劃이그만큼 遲延되거나혹은蹉跌이되엿슬는지몰을것이어늘 그만 外寇內訌의 二重國難에얼씨진 仁祖朝廷은 두서의그를防禦함에는 넘우도無力하엿슴으로 敵人의先鋒이平山에出現하자마자 江都城下에서盟約을締結하기에 그것이와時勢에順應할인지는 몰오되 너무도屈服하고屢敗한것을 根本的으로暴露식혀 더욱異日의輕侮를 招致하엿다 그러나滿洲汗廷에게 後顧의患이업게되는이만큼 前進의便을주어中原經略에 그의專力을傾注하게된것만은 事實이니 그럼으로이로부터 北伐西攻에향상勝捷하야 다시丙子役을지내여最後燕京에入據할때까지거의破竹의勢로進行하게됨을 보면朝鮮의向背가 大局을決定함에잇서서얼마나크게關係되는것인지를알것이다

### 五、丁卯胡亂의根本意義

丁卯胡亂은 疾風驟雨가티來하는 外寇임으로 戰爭그것으로는 그리大規模的이 아니엇섯나니 겨우三萬의 動員과三個月의戰期와 또그兵火의區域이 兩西一帶에 局限되이만큼 그로因한 被害程度도 較少하야 커三十萬의「사무라이」가 前後七年동안에 八道山河를蹂躪하며 全國生靈을塗炭하든 壬辰亂에 比하면 霄泥의差가 잇스며 皇太極汗의引率로서 丙後十年만에再擧入寇하야 南漢의恥辱을주든 그軍容의盛大에 比하여도 그慘況의猛烈함이 同日의論가 아니지만 오즉 그것이 明國과항상戰爭狀態에잇는金國으로서의 장차朝鮮과의 關地貿易을行함에依하야 그物資를補充코자 하는것을主하야 經濟的으로 자못緊切한關係를 가지게되는것이며 他日中原의霸業을 建設할一大前提로서 또는後來帝國의關係의 修好上의 出發點으로서 善隣의約上에 政治的으로 매우重大한性質을 띄우게되는것이며 高麗에부터 父母邦으로 尊崇하여 一個異族으로 自居하는 愛親覺羅氏가 干戈에訴하여서까지 兄弟의盟約을 持續하려함은 그것이 決코尋常한 關係만이 아니요 적어도彼我에 同族이란 潛在意識이 不知中에 그를通하야 復現하는것으로 볼수잇스나 이가티 考察한다면 歷史的으로 적지안케 興味잇는 問題가되는것이다

---

朝鮮日報
朝鐘又鼓
鮮衆奮起
日宣月傳
報筆正直
曹成煥

在北京 晴簑 曹成煥氏筆 002241

## 八面鋒

○ 張作霖은、嚴然한皇帝儀式으로紫禁城안大和殿에서、新年祝賀를바덧다고、當年의紫禁城의蓋瓦장이나쳐다보앗슬가

○ 溥天無冠王이、北京無冠帝로壓迷한것은아니지마는、列國이南方政府承認問題를쉬내는데는、가슴이둑은둑은할걸

○ 武昌政府는、親日策을써볼가하다고、떡줄녀편네는생각도안는데、김칫국부터마시는사람의말이아닐가

○ 政友會는、若槻內閣의不信任案을、그어코提出할생각이라고、암만해도政權을、차저보겟다는말인가

---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Monday, Jan. 3th, 1927.*

LET US FACE THE NEW YEAR WITH A SMILE

BY PHILIP JAISOHN

111

Wile the area of land is comparatively small, the fertility or preductivity of Korean soil is sufficient to support its present population on the present scale of living. If scientific methods of cultivation and proper rotation of crops are introduced the land will produce mady folds more than it does now and that will take care of the repuirement of ascending scale of living and the increase of population for some yers to come. The climate of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and it has no such drawbacks as earthpuakes or tidal waves, or destructive tordadces. There are sufficient varieties of basic minerals deposited in Korea to take care of many of its wants in iron, coal, copper cement, etc. It is a blessing to live in a country so richly favored by nature. It is like an is'and on three sides yet it is part of a great continent hence it has the advantages of both an island and a main land. Situated as she is between the three great nations where she can play a great roll for peace and advancement of that part of the world, if her sons and daughters want play their natural and geographical part. There is no trouble or missfortune that they can not remedy if they all make up their minds to do so. For instance, if they all agree to abolish poverty amorgst them, I believe it can be done in a few years. If they all agree to abolish illteracy in Korea, that can be done a'so in a short space of time. If they all aguee to keep cut contagious diseases from land that can be accomplished within a year. If every body works and prodrce poverty will have to move to somewhere else where the people do not labor.

---

京城
各種毛物 獺皮 綿布 蚊帳 涉只 廉價 조바위製造
京城府公平洞八八番地(鍾路局前)
元昌商店 李泰鉉
電話光化門二三六七番 振替京城九六七

京城鍾路一丁目四十六番地
韓敬善洋靴店
電話光化門五七八番 振替京城一〇五八一番

京城西大門町一九。電光九一四七七
神經病 精神病 專門 神經科醫院
煩悶解決 慢性病 人事相談 院長 金 女醫 ...

京城鍾路一丁目二二番地
理髮器具 和洋金物 卸商 佐藤商店
振替京城六〇三八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〇八番地
壯筋補神丸 淋疾祛根丸 本舖 仁義堂藥房
主 全義桓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四番地
京城齒術院 金承集

京城鍾路二丁目
化泉帽子店
主 方漢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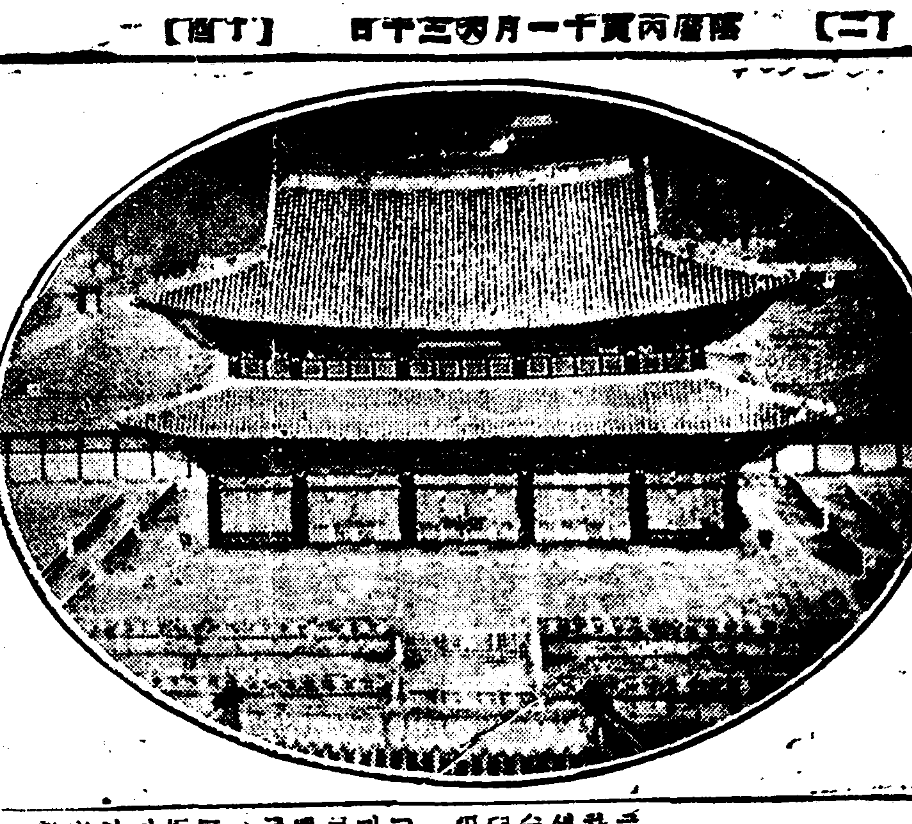
京城府鍾路二丁目六十番地
綢緞布木 洋服其他 直輸入 貿易商
金熙俊商店
電話光化門二二六八番 振替口座京城六二二五番

日本戶長寶貴具會社特約店 米오나다會社製具寶物特約店 周衣카라製造 發賣所
谷鳥商會京城支店
支店主 鄭奭鎭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一五九番地 私書函光化門第六號 振替京城五一〇九番

京城府安國洞三十七番地
槿花女學校
電話光化門一五三八番

京城府長沙洞八十三番地
織造元 東洋染織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三三八番

우리物產 同胞衣次 東洋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三番地
總發賣元 興一社
電話光化門一八七五番



◇금년에회갑된경복궁근정뎐

## 三千里疆土를懷中料理튼昨日 今日엔白堊舘後에淚容만隱現

사모각대를단정히차린백관이드나들든내문 세상도변할손백아관뒤긘노룸이어인일고

### 丁卯가回甲인勤政殿의哀訴(一)

금년이벌서 뎡묘(丁卯)년 이라 하니 세월이참으로빨으고 사파세상(娑婆世界)이 참으로 멋업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륙십년전 뎡묘에는 반도의산하를 뒤업흘만큼 놀라운세력을가진 대원왕(大院王)이 리조(李朝)의 태조고황뎨사년에 한고조(漢高祖)가 미앙궁(未央宮)을 짓든격으로 나를지어노코 내품안에서이백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두고 국정을 료리하다가 불행히선조(宣祖)이십오년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도이일거(島人一炬)에 가련초토(可憐焦土)로 재가되어후로 십사대(十四代)동안을그대로 폐허(廢墟)가 되야버린것을 아모계역이사 고종태황뎨(高宗太皇帝) 이년즉 을축(乙丑)년봄에 나를중수(重修)하기시작하야 삼년만인 고종사년뎡묘에 락성을식이엿섯습니다 그리고는다시 내품안에서국정을료리 하엿섯지요 그런데내가락성된지 백년도못되고 겨우 륙십년밧게 아니되는 오늘날에와서 세상이엇지면이러케 변할넛가? 그때의내품안에는 사모각대(紗帽角帶)에 위의낭당한 백관들이 다각기 품위(品位)를 차자돌어 업되며 삼천리의반도를지배 좌처 하얏는데 지금에와서는 전에볼수업든 양복이라든가하는 홋대바지를입고 비닭이장가티 소 어노흔 배아양은(白帝洋銀)으로물려들어격경청하는동에 나는고만 주머마진김투처럼 뒤켯헤서서 눈놀 만홀리게 되얏습니다 그러나커러나 지금에내가 엇뎌한커디에잇스며 얼마나후한 대접을밧는가는내가 스스로 입을버릴것도업고한참당년의지나간이야기나하여 울적한 심회를풀어보겟습니다

대원군이X나를 중수식일때에면커 수진보작혈(壽進寶爵穴)이라는흉을 만들어올리엇스니그는무엇이냐하면 거창한공사를 시작하라면 물재(物材)가만히들고 자연히그러면 말실이만흘가 보아서 위선 말막음하고자계교를내여 경회루(慶會樓) 미테서 옥반(玉盤)을 어덧는데 거긔는 경궁을 중수하면 국운이왕청하고 보조(寶祚)가무궁(無窮)하다는 긔록이 잇는 방회(朴樂回)라는사람이 참외문(懸樂門) 방석경(石瓊樓)에서 옥배(玉盃)를 어덧는데 거긔는 수진보작(壽爵寶酌)이라는문구가 삭이여잇다는등 하며 시비부터따어노코 을축년봄부터 공사에착수하는데 국가의대사라고 총감독은 대원군이고 팽(彤服)가려부리든 훈련대장(訓鍊大將)겸포도대장(捕盜大將)이든 리경하(李景夏)를 임명하고도데도(都監)로는당시에영의정(領議政)조두순(趙斗淳)과좌의정(左議政)김병학(金炳學)을 내여수백명목수와 석수가 긔구잇게지어딧습니다 그러나 원래일정한예산이업시 시작한일이라 역사는 반도 못하야선혜청(宣惠廳)―에 지금말노하면대장성(大藏省)―에 돈이 떠러지니 그러타고하든일을 그만둘수도업고 그냥 계속할재력은업스매 대원군은팔도부자들에게원납(願納)이라고명칭을 붓쳐 강제기부를밧것고 그래도모자라니까 나중에는 결두세(結頭稅)라고 새세금을밧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문세(門稅)라고사대문(四大門)으로드나드는 백성에게 돈을바덧답니다 그러나그것도 모자라서 당오전(當五錢)이라는돈을만들어 쓰게하다가 나중에는 청국(淸國)가서 『쇠전』을 다갓다가썻답니다 그래서 가진수단을다하야 간신간신히공사를 진행하는데 그중에도또마(魔)가 들어 병인(丙寅)년삼월에화공(畵工)가가(假家)에서 불이일어 칠백여간의가가가모조리 타버렷스니 이와가튼 큰일을 재정업시 경영하는대원군도딱하지요만은 내팔자도 순풍괘범(順風掛帆)이라하겟습닛가? 생겨날적부터가 그러니내 수명이 길지못한것도 고이치안치요(계속)

## 天安에拳銃青年 大金提供을强迫

이십팔일조저녁에권총청년이돌현 권모집에서대금을강청후종적감취

### 後期는京城南山公園

충남텬안군 성남면 대화리(忠南天安郡城南面大花里) 권모(權某)의집에도 권총청년이나려갓다는데 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이십팔일 초저녁에 권총을휴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권긔권씨의집에 돌입하야 하는말이 커녁밥을 아니먹엇다하매 주인권씨는 곳밥을더컵하얏는바 먹은후에그청년은 말하되 나는모처로 부터 왓다하면서 권총을 내여노코 대금(大金)을 뎨공하라고 위협함으로 주인권씨는 마츰현금이업고 잇는것을 긁어노으니 칠원오십전밧게 아니되는지라 후긔를딸한즉 어느날인지는 모르나 경성남산공원으로 맛나자하고 문득자최를감추어바렷다는데 이소문이 한번퍼지자 그부근일대의 인심은사못흉흉하며 소관 경찰서에서는 범인수색에 대활동중이라는데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라더라(텬안)

## 故孫秉熙氏家를 連三日搜索

홍성경찰서주야로활동

### 出沒自在한怪青年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반경 충남홍성군홍주면대교리(忠南洪城郡洪州面大校里) 이백팔십삼번디 고손병희(故孫秉熙)씨 집에 엇던청년한사람이 나타나서 고손병희씨미망인곽병화(郭秉嬅)씨를 방문하고자긔는본적 경성영락정(永樂町)일백이십번디에두고 현주 동경신뎐금정김현오(金ㅅ鉉)란명함을내여주며 하는말이 자긔는동경에잇는 신부경(申富敬)과 친한친구로금번에신부경이와가티동경으로부터왓다하며신부경이가보낸것은 잠간수하에 두엇는냐고무르며 자긔는 방금경관의미행으로 말미암아 매우곤난하다는등 가장수상밧든 청년임을 표하는지라 전긔곽씨 그모양부득의말을듯고 그것이 무슨딩치못한말이냐하며신부경에게셔아모것도 온것이 업다하매 문득그청년은 밧게서 사람의자최가 난다하거늘 곽씨가나가보즉 과연형사세사람이 달려들어 형사하나는그청년을잡아가고 남어지 두형사는 가택수색을 청하야엇쥬한수색을한후 오후세시경에야 도라갓다는데 전긔경관에게 잡혀갓다는청년은 그시간에 또다시그이웃텬도교종리원(天道敎宗理院)에 나타나 리진비(李鎭飛)씨를 방문하고 거긔서도 역시자긔는 경찰의주목을 밧는청년이라 말하고 스사로 도라간후그 이튿날되는 삼십일 오전십일시경에 재차형사대가 권긔곽씨의집에와서 집안식구들을 모다한방에 모와노코 한형사는대문을 장거버린후 두형사가 다른방에 안치서 집안식구를 한사람식모조리 차례로 취됴하고 오후세시경에 아모것도 엇지못하고 도라가더니 또다시 그이튼날되는삼십일일에 권긔곽씨에게와서 묘사하고 도라갓다는데 형사들은 지난이십팔일에 온것을내여노혼다고성화가티독촉하엿다더라(홍성)

## 親友會改名

【북만】중동선텰령하(北滿中東線鐵嶺河)에 본부를둔 수양단톄 친우회(親友會)에서는 수이월십칠일에림시총회를 개최하고 회명을사회과학연구회(社會科學硏究會)로 변경하는동시에 임원을 개선한바 당일에 선거된임원은알에와갓다고

執行委員
田大白 李一宇 李昇權 槿 大達 黃徹宇

## 『正服巡査』强盜

하루밤에네군데나타나

### 百餘圓을强奪逃走

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쌍암상사(雙岩上沙) 량면(兩面)등디에 괴상한강도가 출현하엿다는데 들은바에 의하면 지난이십칠일오후열시쯤되야몸에는순사의 정복을입고 허리에는 군도와포승을차고 머리에는 발꽁모자쓴청년한명이 상사면(上沙面) 롱계리(龍溪里) 엇던집에 들어와 주인을보고 금전을요구하엿으되 주인은의심업시 삼십여원을내여보이매 그순사는피봉(皮封)에 지폐수효와 성명을써두고 돈을가지고 나서며 내일주재소로 와서 차저가라하엿스며 동면(同面) 도월리(道月里)에서도 역시그와가튼 수단으로 칠십여원을 탈취한후 동리(同里)지운화(池雲化)의 음식뎜에와서 술을먹은후 또쌍암면(雙岩面)죽천리(竹川里)정성환(鄭聖煥)의집에와서 역시그와가튼 방법으로 이십구원구십오전을 탈취하고 동면유평리(柳坪里)허선행(許善行)의 음식뎜을 거치간후에 이십팔일오전칠시에도 또 동면선암사(仙岩寺)에 나타낫다가자최를감추엇다는데이보도를접한 순텬경찰서는 여음기지안코 대활동을 개시하엿스나 범인의종적은 오리무중 이라더라(순텬)

## 汽車에墜落 一名慘死

부주의한탓으로서 긔차에떨어커죽어

부산(釜山)행 제팔호(第八號)렬차가 지난 삼십일오후한시십분쯤되여 신탄진(新灘津)을 지나대뎐군 회덕면와동리(大田郡懷德面瓦洞里) 구역평촌(坪村) 뒤를진행하든중삼십세가량된남자가별안간차에서뛰러커죽엇다는데 그와동행하든 삼오세가량된 소년도그것을 보고놀라 구원코커하다가 또한떨어커 죽엇다는데 자세히 됴사할수는 아즉업스나 죽은원인은 부주의한 듯하며주소는 경긔도려주군(京畿道驪州郡)인듯하며 성명은 알수업다는바 아마수원에서 목포까지가는것에 그와가튼불의의참화를입은듯하더라(신탄진)

## 衡器로詐欺

두명은검사국에

함남안변군 신모면공수뎐리(咸南安邊郡新茅面公須田里)에서 미곡상하는 채계달(蔡癸達)은 원산에잇는 리창률(李昌律)과 공모해가지고 큰말(大斗)을 파내어 륙홉(六合)이나 더들게한후 사용하다가 그만피해자에게 발각되는동시 그곳경관주재소에 고발되야 그두명은경관의손에 붓잡히여 곳원산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는데 전긔채계달은 이번뿐만아니고 삼년전부터그와가튼 일이잇섯다는데 그간피해자도만흔듯하다더라

## 墻壁을破壞侵入 父子를結縛脅迫

필경소득업시달아낫다

### 務安에强盜團出現

지난이십구일오전한시경에전남무안군일로면광암리(務安郡一老面光岩里)일백오십번디 백만장자림병태(林炳泰)의집에 키가 오척삼촌이나되고 나히 삼십좌우간쯤되여보이는 복면강도네명이 그집담을 흐너트리고 들어와서 두사람은 마당에서 망을보고 두사람은 주인림병래의방으로들어가서취침중 든림병래를결박하고 또 그엽방에서 잠을자든 림병래의장자 림인규(林寅圭)가자긔부친의방에서 이상스런소리가 나는것을듯고 들어와서 그와가튼 모양으로 결박한후에 저이늙어온집안의 세간을 뒤지라고하는중 사랑에서 포박을당하고잇든 림병래부자는 결박된것을풀고 문밧그로 뛰여나가서「강도!강도!」하고소리를 침으로 강도들은한가지 물품도 가지지못하고 그대로 도망을하얏는데 이급보를들은 일로주재소(一老駐在所)에서는 목포(木浦)서로시급보고를하야 고하경부(古賀警部)이하형사오명이현장에달려가서 증거를 됴사하는 일편으로 각방면으로 활동중인결과 혐의자라고할만한자 두명을톄포하야 목하엄중히 취됴중이라더라(무안)

## 尤甚한專賣員과 可憐한村民의犯則

삭짐지다가짐에담배잇다고 짐군을잡어다가검사국으로

평양전매지국관내(平壤專賣支局)에서적거되는전매령위반(事件)범칙자의수효는해마다 증가되는경향인데 대정십삼년중의 검거건수는 겨우륙천구백삼십이건이든것이 대정십사년에는 일만오천팔백 오십건이 되얏스며 대정십오년에는 아직 통계가 자세히 되지못하얏스나 이만건을 훨씬넘으리라는바 그 검거되는 사람들의 상황을들어보면 실로참혹한일이 만흔편이니라 전매국원들의 범측자취체라는것이 지극히 혹독하야촌사람들은견댈수가업다고불평이 만하가며혹 정식재판을 하거나또는전매국으로부터검사국으로 넘기어재판을밧게되면누죄되는사람이 만히생기어 검사국에서도 놀거리가 된다는데 최근벌금을내인사람과 검사국으로 보내인사람을보면 대략알에와갓다

평원군동송면 차봉구(平原郡東松面車鳳九)라는 일흔세살된로인은 전매국에서 알지못하는납담배약이원 사십전어치를 가졋다가 십이월구일에 평양전매지국원에게 발견되야 벌금칠십오원을 내이고 계창빈(桂昌彬)이란사람은 오십전어치담배를가젓다하야역시 벌금 이십오원을 내엿스며 대동군서천면 인흥리(大同郡西川面仁興里) 박인겸(朴仁謙)은우차(牛車)를부리는 사람인데 작년음력사월경에임금을밧고 이사짐을 실어주엇든바 그이사짐속에 담배가든것이 발각되야 그집주인은본

(同)에서적거... 최여윤(崔汝允)등은모두 우차부로 전매국담배를 싯고가다가중간에서 남의배에(?) 여먹엇다고 검사국에 고발되엿다더라(평양)

## 今回大赦로 朴烈도減刑?

불경죄로수감된박렬과 행덕의일파도감형될듯

대상(大喪)에의하야 대사령(大赦令)이발포되리라고 배승되는바사법성(司法省)에서는 면밀한조사를 하는중이고 또수속방법(手續方法)도강구하는중이라는데 불원간결정하야 성의(省議)를마친후 내각의손으로상주될터 이라는바 이번의 대사(大赦)는대역죄(大逆罪)불경죄(不敬罪)존속자(尊族者)에게서 친범죄등에나하야서도 감형(減刑)의은명(恩命)이 잇스리라고 배경앙으로 방금 천엽형무소에 잇는 박렬(朴烈)과 북해도에서도 사(?)(北海道獄舍)에서고역을하는 행덕사건(幸德事件)의잔당또는원경(原敬)씨를 경도두에서 살해한 중강간일(中岡艮一)도 불원간세상구경을하게될터이고복뎐대장(福田大將)을 저격한 화뎐구태랑(和田久太郞)도세상에 나올날이 갓가워질 모양이라더라(동경)

## 廣州市의銃聲

일시대소동을햇스나 알고보니산양총소리

지난삼십일일오후광주군돌마면분당리(廣州郡突馬面盆唐里) 장날(市日)임으로 아츰부터 모혀드는장군으로 인산인해를 일우엇는데 별안간그가운데로부터 총소리가남으로 더구나 인심이흉흉한이때이라 일반장군들은 또 무슨사건이나 폭발하지 안엇나하야 한참동안은 장바닥이 들석하얏는데 기실알고보즉 전물마면장리준구(李浚九)라는사람이 산양총을발사하야 참새를 잡으라고한것임으로 일반은그사람의 넘우도부주의함을 힐책하얏스나 리준구는 조곰도뉘우치는마음이업시 대항함으로엇던장군과는 서로구타하는등일대실풍경을이루엇다더라

## 沿江勞働界大問題 採氷料金減下

작년에는삼전식주든것을 일전을작거나려문분분

한강물이 얼어서 어름뜨기에적당하게되엿는데 그동안 빙고업자(氷庫業者)들은 모든준비를 마치고 지난삼십일부터 채빙하기를시작하엿스나 이제 한가지 문뎨되는 것은 어름운반하는 임금을작년에는 어름한덩이 한집에 삼전식주든것을 금년에는놀연히일전을감하야이전밧게안주는까닭에 연강에잇는로동자들은 마츰내이것으로중대한문뎨가되엿다는데그원인이즉쌀갑이싸닛가 로동임금도 이가티감하다는 박약한리유로 작년과금년쌀갑을 비교하면 조금도틀림이업는것이 동일한사실임에도불구하고 이가티 무리하게로동자간에서는 물론이어니와 일반사회에서도 만흔비평이잇다더라(고양)

## 男爵豫備少佐 自銃으로自殺

지난삼십일날 오후 구시반경에 동경부하 동중야(東京府下東中野)일천일백오십사번디 남작(男爵)보병예비소좌 지뎐정우(步兵預備少佐池田政佑)는 자긔집에서 총(銃)으로 자긔목을노아 자살 하얏는데 그품속에는 대정텬황(大正天皇)의어붕어하심을 애도하는유서가 잇는것을 보면 순사한것이 분명하나 경시령에서는 지전과대정텬황과는 하등특별한 관계가업는터이라순사라고하기도어렵다고한다(동경뎐보)

## 正服입고酒酊

군중에게매맛지마커

삼십일일오후네시경에시내종로삼뎡목종묘압(市內鍾路三丁目宗廟前) 에서 정복을한 어떤경관한명이 군중에게포위되어서 맛다를당한다는 정보가 종로서에왓슴으로 숙직을하고잇는 형사들은 빨리옴기지안코 급거히출동하야 현장에달려가본즉 군중은 이미허터커 아무도 업섯다는바 사건의 진상을 탐사하야본즉경성역(京城驛)파출소에근무하는 김모는 정복을한채로 술이며취하야 전긔종로압을 지나가다가 공연히지나가는 사람을 붓들고 주정을하야 힐난을함으로 이에 분개한군중들은 순사는 맥주에함부로 주정을하여도무방하냐? 고하며 그와가티 큰소리로 이러난것으로 결딴이되엇다는데 전긔순사는 그때도종장피한생각이잇섯든지 어듸로인지 자최를감추워버렷고 현장에는 정복이부튼 단초가세게나떠러커잇섯다더라

## 六歲兒燒死

아궁이出火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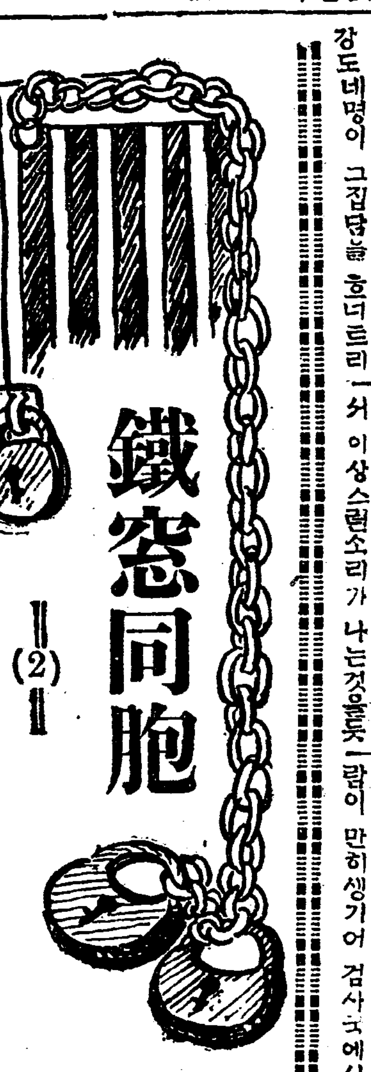
가뎡에서조심할일

경긔도 광주군중부면 상산곡리(廣州郡中部面上山谷里)유진성(兪鎭成)의 둘재딸 언년(彦年)(六)이는 지난삼십일에 불에타 죽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말을듯건데 전긔언년이는 그어멈이잇는고모집(姑母家)리덕화(李德化)의집에가서 커녁하는아궁이압헤 안젓다가 불연히처마에불이붓헛슴으로 이에언년이는 어린마음에 당황망조하야 울기만하다가 전신에불이부터 화상을 당하얏슴으로 이에 치료하든중 효험이업시 드듸어 사망하얏다더라(광주)

## 종명자

▲오래간만에각극장(劇場)들은손님들이 복잡하야정초의관계로시내의활동사진관들은 대성황다런일만원의 대성황을누리운터인데▲일일밤단성사에는활동사진보다 더신긔한 구경거리가 잇섯다▲그것은 뉘집소년인지 인물도똑똑한 친고가머리에이상한것을쓰고 구경온것인데 탑추의여디가업시들어서쾌판은 이친고의머리처어다보기에정신이황홍한모양!▲무엇이가하고 누죽시들어서당(書堂)에단이는 아이들의덥실밥넛는밥망태이가리실(糸)로뜬 모자를목을더써서 허럼업시밥망태기를이고단이는 것가러보이겟지▲그런모자가근래에는별로류행이아니되기에인제는괴상한 친고들이 업서젓든가햇더니그래도남어잇서▲이야말노색은행괴(索隱行怪)하든심사를알수업는도배(徒輩)들이야)▲한참동안남자는장발(長髮)이류행되고녀자는단발(斷髮)이류행되여서▲남자는 기ㅡ다란머리털을귀밋까지느려결리어서발녀(長髮族)의별명을듯고▲녀자는 삼단가튼머리를싹싹거버려잘분머리가나풀거려서단발미인(斷髮美人)이라는 존칭을듯더니▲요사이에와서는인지남자는 도로머리를짧게깍고녀자는도로 머리를길게기르기시작하야서▲장발적파단발미인의존칭을듯든 신사숙녀는 썩 보기가드문모양이다▲무엇이든지 류행을 넘어벗하다니면 그러케속히 식는법이야

## ○○黨關係 未決囚百十



### 鐵窓同胞 (2)

#### 金華山下西大門監獄 學生萬歲被告十一人

전조선의 렬창동포동재는 작지소개와 갓거니와 선뇌수부락는 데경성에는 죄수를집어삼키는형무소도 두군데나 벌려잇스니 금화산(金華山)중턱 서대문형무소와 솟휙한 공덕리(孔德里)에외따로 떨어커 잇는경성형무소 그것이다 위선―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된 죄수는총수가 일천팔백여인으로 그중에 남자미결수가 삼백오인이오 녀자미결수가 열사람이며 남자긔결수가 일천이백십구인이고 녀자긔결수가 륙십륙인인데 남자긔결수중에 정치범(政治犯)이 삼십인이고 기타는 절도、사긔횡령등의 범죄가 대부분이며삼백오인의 미결수중에는 조선○○당 사건관계로 지금예심중에잇는사람이 일백십칠명이란다수에달하는데 그가운데일곱사람은 보석되고 시방남아잇는어가 일백십인가량이라 한다 그리고나시금 우리의 긔억에새로운것은 작년륙월에 순종(純宗)국장당일에 쌀려오르는피는 가슴의뛰는 피를금치못하야 조선○○만세를 불으다가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과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과 제령위반(制令違反)이라는동 붓의기에도거북한 기다란죄명으로 수감되야며 일회공판을받고 집행유예(執行猶豫)란판결까지바다 당포동안렬이에 여럿붓이 해방은날에 나올번하다가 다시 검사의공소로말미암어 옥중의괴로움과 무학재(無學)한비람이 어린몸을 떼는 학생들한사람이 또한그중에어엿다

#### 監房總數는二百間 男女普獨으로區別

서대문 형무소는 총감방수는이백여간인데 죄수들중에는 그종류가 여러가지인만큼 그들을수용하는감방도몇가지의종류로난위어잇는것이니남자에게는남자감방녀자에게는녀자감방이잇고 또보통감방외에 위험죄수와 중대한 죄수는 독감방(獨監房)에 수용하는바 이보통감방에는 한감방안에 두사람이상으로 근백명까지잇는터로 서대문 형무소의 감방이백간속에는 남자보통감방이 일백오십구간이며 남자독감방이 삼십팔간이며 현재녀자를 수용한 보통감방이다섯간이다

#### 昨年來思想犯增 獨監百間增設準備

지난일년동안에는 사상뎍 범죄자가 파텬황(破天荒)의 수효를 보히게되고 그들은 모다독감방이 필요한데 감방이모자라서 당국에서는 범우도골치를썩이든터에 독감방백간을 증축(增築)코자하다가 예산이 부족한관재로 아즉것이늘 실행치못하얏는데 만일 시급하게된다하면 금년봄부터는 공사에착수할모양이라한다 그런데 이곳은 네개미결수(未決囚)가만히수용되얏스며 긔결수(旣決囚)로는 단두형(斷頭刑)의죄수들이 만하며개괴결수로는오소한범죄자가 경성형무소보다만히수용되엿다

#### 美人囚金貞弼消息 鐵窓下에懺悔紅淚

녀죄수들중에는 경국(傾國)의 아름다운 얼골의 주인공으로 본부를독살한 문뎨의미인 김뎡필(金貞弼)이도 이곳에 노을 컴컴한감방에서 눈물로보내는중인데 김뎡필은자긔의 지은죄에 만히뉘우치는 터로잇다금참회(懺悔)의 눈물을 흘리며 형무소의 규칙을잘지혀가는 터이라 한다

## 服役重罪囚中에 政治犯百三十

### 孔德里의京城刑務所 無期囚가七十七人

또경성형무소로말하면 일백칠십일인의간수(看守)들과 일천일백삼십일인의 죄수들이 잇는터인바 서대문형무소에 비하야중형(重刑)의죄수가 만히 일천일백 삼십일인의 죄수중에십년이상의죄수가 삼백오십인 이며 또한무긔징역수가 칠십칠인이나되는데 데 경성 형무소 현재복역수중에 정치범(政治犯)이 일백삼십인이나되야 전수효의일할이상을뎜령하얏다한다

## 己未運動以後 絞首臺行激增

렬창생활도 렬창생활이러니와 비록 커지은죄 탓이라 하엿스되 교수대의 이슬노살아지는이의원한이야 무에라이를것이 ... 것노 긔미년전과긔미년후가현수히달과만세전에는살인강도와본부독살녀등밧게는 매단히 희귀하엿섯는데 긔미년에 경상북도칠곡(漆谷)부호장승원(張承遠)씨를 권총으로사살한광복단(光復團)일파의박상진(朴尙鎭)이하 수사인과재등총독에게폭탄을 던진강우규(姜宇奎)를비롯하야 사형수의매개는 정치의 색채를 띄게되엿다 그러고 사형수형자(死刑受刑者)의수효도대정팔년에는 전조선의통계가 십일년에 지나지못하든것이 대정십년에 이르러는 돌연히 사십오인이란 엄청난수자를보혓고 그후 대정십삼년에는 다시 십일명으로감소되얏는바 대정십오년에 이르러는 경성복심법원 한곳에서만 사형을바든사람이열네사람이나 되엿다

### 京城만十四名 卅歲未滿青年

그성명은 알에적은바와 갓거니와 그나히를보면 이십일세로부터 삼십세미만의 맛나운청춘들이열명이나되니 이얼마나 참혹한일이냐

▲强盜殺人及傷人趙丙南(二四)▲同上太用極(二三)▲强盜殺人崔岩伊(三六)▲强盜殺人及詐欺金長庚(二五)▲殺人張德三(三六)▲同上片貞俊(二四)▲强盜殺人李心石(三三)▲殺人馬鶴文(二八)▲本夫謀殺李貞玉(二二)▲殺人(巡査)方俊峯(二一)▲同上金日松(二四)▲同上黃一千(二三)▲殺人及殺人未遂宋學先(三二)▲强盜及强盜殺人權寶洙(三二)

京城
本舖 東洋藥院
京城府竹添町三丁目二二九番地
特製梅毒丸 壯筋骨補氣血力士丸 新淋疾治淋丸

金溶埰內科醫院
京城府觀水洞一六三番地
電話光化門四五三番

合成木工場
京城府笠井町一八九番地
荷造木箱製餅機械和洋家具
電話光化門一六九八番 振替口座京城四二四五

日光屋洋靴店
京城府北米倉町五十三番地
主 權聖七
電話本局三三二番 振替口座京城八八七一番

東明護謨工業所
朝鮮京城府黃金町四丁目二一五番地
主任 鄭淳參
電話本局三八〇四番

朴德裕洋靴店
京城寬勳洞一六九番地
電話光一一八三番 振替京城七九八五番

新舊書林
京城蓬萊町一丁目七七
各種書籍 賣買
主 盧益煥
電話本局六二二番 振替口座京城二八五二番

朝鮮鐵工場
京城府中林洞一三九番地
精米機 支那式製油機 混合機 製粉機 丸機 酸素鎔接部
主任 金泰和 主務 金榮澤
電話本局一八六三番 振替口座京城二一九八三番

東洋劑藥社
京城鍾路二丁目八三
飛龍丸 沃度加里丸 本家
振替京城一三九九一

榮光社
京城鍾路二丁目八三番地
眼鏡 萬年筆
振替京城一二九五四

學友洋靴本店
京城府公平洞百四番地
電話光化門一六六一番 振替京城一四七一五番

# 舊家庭婦人의新年抱負

## 夫婦中心
### 규측뎍으로살자
◇吳世昌氏夫人 朴明煥女史談

나는누엇보다도 식구가 단합하야 자미잇고 규측뎍으로살수잇도록 조선가뎡을 개량하엿스면조흘줄압니다 시부모와 아들며느리가 한집에살고 여러형뎨가한집에잇서 손자손녀들이 우글우글하게모혀잇는집이라야조선서는 행복된가뎡이라하고 구순한가뎡이라합니다 심지어 사대오대까지도 한집에서 들석거리게되니 엇더케생각하면 그것이퍽 귀중하고도 의조흔집가티 보히지마는 한나무의 열매도 오롱이 조롱이라는 말이 잇는것처럼각 어머니의자식들이모혀한가뎡을 일우는 그속에 엇지못한 가지음식한가지에라도 의견이 갓겟스며 그럼타고 죄은것이나마자긔뜻대로 주장을 세워볼수잇겟습닛가? 그보다도 늙으신부모님과 날마다 새롭게새롭게진보되여나가는 젊은이들이 엇지마음이마저서

### 가뎡
외모든사무를순순히처리할수잇스리오 그뿐아니라 아이들도숙질이리 또는사촌이리육촌이리여럿이모히면자연히항상말다툼 흔하게되고일동일정에서 나종에는아이싸홈이어른의 불평을사기까지에 니르는것이올시다 그리고 거죽으로는화평한듯이 내색을 하지안코참는그며느리들의 속이 엇더하며완고한 시부모님의 무리한질책을당할째도 죄지안흘것이외다 나는한집안에 층층이 여러가족이모혀사는것이 엇더한점으로 보던지 가뎡정리상에 원만히되지못할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새해부터는 할수엇는대로 조선가뎡도 내외나외까 한집안에중심이되야살게되기를바랍니다

## 白衣廢止
### 쌔래하다세월가
◇牧師金永燮氏夫人 金太淑女史談

새해부터는 흰옷을 닙지맙시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것이우리조선부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바이올시다 곱게닙으면사흘 막우닙으면 하로동안에도 못닙게더러워지는 흰옷을 아이들만해도 코는 집안식구수효대로 넘게되니 누가엇지 그것을 하로한결가티정하게닙히어 겟습닛가? 조선의복은 첩이니 것이니 빨어다드릴째마다 발기발기 뜨더야되고한번을 고처지여놋차면 얼마나힘이들며 얼마나시간이만히듭닛가? 내가말하지안어도 여러부인들의 경험하는바이라 그폐단을 더들지안흐려거니와 참으로조선부인들은 의복의 종이되여 나드리한번을 서뜻할수가업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보기에는 밤낫더럽게만 닙고사는것갓지요 귀족사회나 부호가의집을 켜켜노코는 어서흰옷을폐하여야우리

### 조선
가뎡부인들은옛과 [illegible] 압니다 그리고세간도 조선가뎡에서는농이니 장이니하고 너무차려노코 사는것이 조티못한풍속인줄압니다 의복이나 그릇이나 너무 만히 장만하고 너허노코 쓸만한 큰세간을 집지올때 붓백이도만드러 지엇스면 편리할것이올시다 그것은이제부터 새로히 살림을시작하는이나 새로히 집을짓는이외에는 실행하기 어려울것이지마는 우리처럼 월급생활하는이의 가족들을위하야는 아조 긴급한일입니다 한옛 오래잇서야 한군데사오년이요 그러치안흐면 일이년만에도 갈리게되는터이니 이사할때마다 세간을빌히뗘싯고 단인다는것이 얼마나 불편한일이겟습닛가? 나는 이두가지가 하로밧비 어서고처지기를바랍니다

## 一齊食事
### 밥타령은불가
◇尹致昊氏夫人 白梅麗女史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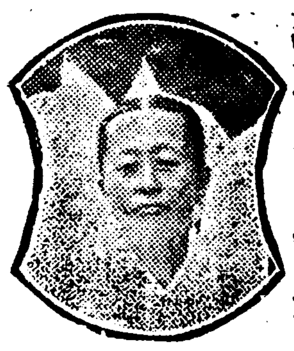
조선가뎡에서는 저무도록 밥타령이 올시다 삭하나가나면또 상그상이나면 또상아츰부터 일은 하여볼사이가 업습니다 다그것도 식당이잇서서 큰상하나만 노하두고 누구든지 거긔서상을 밧게된다면 오히려낫겟지마는 상을안방으로 드려가고 사랑으로드려가고 열사람이면 열사람이다 각기연상에서 연자리에안저밧게되니 시간은 얼마나만히걸니며 수고는 얼마나만히들겟습닛가? 나는 새해부터는 경제의여유가 조곰이라도 허락하는 집에서는 아모것을 다못하여도 아도식당하나는잇서야하겟습니다 자는방에서 밥을먹고밥먹는 방에서 일을하고 하면첫재로내음새가 나서못견댈노릇 입니다 그러나그것은

### 가뎡
에서아모리녀자가 불편하다고 늣긴다하여도 경제에능력이업슴으로 능히실행할수가업는것이올시다 경제뎍으로한가뎡의 편세를잡은 남편되는 이가 엇더한집에서든지먼저이것을깨닷고실행하여주지안흐면안될것이요가족이한꺼번에시간을 맛처서 식사를갓티할수잇도록하여야될것입니다 그것도안식구들은몃번주의하야습관을안치면얼는되지마는그보다사랑어른들이혼히 어그러트리게됩니다 그럼으로나는 금년부터는가짐이수부의 의견을 존숭히하야가뎡생활의편리를도읍게되기를바랍니다

## 簡易生活
### 시간을경제하자
◇權東鎭氏夫人 韓鳳瑞女史談

조선사람이 문명한 다른나라사람에게 뒤떠러지지안코 살려면먼저 우리의생활을 간단히하여야겟습니다 가뎡에 게으름을폐하고 시부모나아들 며누리나손자손녀들이나할것업시한자리에모혀 한상에서 음식을가티먹게하며 음식의가지수를 적게하고그대신 날마다색다른 반찬을하는것도 주부의 수고를덜리는것이될뿐만아니라 가뎡상에 한큰취미가될것이올시다 우리집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랴고하엿슴에는 퍽애를썻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식구중에 누구든지 데일일즉이 학교에가는 그아이의시간을 맛처다가턱 상을밧게되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의복도 조선감으로 양복도아니요조선복도아닌 아조편리하게만 은날하자면

### 개량
복이라고할는지요 그럿케지어서각금 닙어 써써대려닙히고 저희들도 커녀들은 커히들이 헐실로떠서 커고리가튼것도하여입고머리에는 모자를쓰게합니다 녀학생들은 아츰에 학교에갈때에는머리빗기에 큰곤난을 당합니다한참동안이나걸닷케다서 장긔들이면 참으로 시간이만히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집에서는 그아이들도신식머리로 한편으로 가름자를타서 모두머리비슷하게 빗기고리봉을드리거나 머리꼿을 빈으로 꼭눌너주거나합니다 그만것만개량을하여도얼마큼시간이경제되고 힘이덜듭되다 조선녀자들이 일즉이학교에서 배호지못하고 출가를하엿슬망정 그런것만이라도 위선개량을하고 시간을내여 야학이라도 다니게된다면 얼마나 조흔일이겟습닛가?



## 外界接觸
### 문견을넓피자
◇延專學監兪億兼氏夫人 尹喜燮女史談

우리도 밧갓구경을 하고살어야 하겟습니다 세월이오는지 가는지모르고 커부도록 집구석에만 들어안쳣스니가 세상물정이 엇더케 도라가는지 그러면도알수 업슴은연아니라 이목구비가 완전한것으로 사람이라는말을 흘는지 진실로식견을 넓필긔회가업습니다 나는밧갓어룬의 그래도 영어니한문이니 산술이니 일어니하고 배호기도하고 가뎡교사를정하야 배호기도하지마는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격으로

### 방속
에서문뎍닷고배운 그것으로는도커히 날마다 진보하여나가는 이시대의새사조에 뒤떠러지지 안을수업게됩니다 일즉이 학교에가서계단을밟버배호지는못하엿슬망정지금이라도 밟벗고나서서 부즈런히 덥비면 개인생활에불편한점이 업스리만큼은 알어질줄압니다 음악회니 강연회니 웅변회니하는데도가서 구경만이라도하고 못알어지는 문뎨이면 물을수잇습니다 그래서커는 이케부터는 할수잇는대로 세상을아는사람이되고 커합니다 세상에 나와사는 그러한생각을 가진지가 벌서오래엿스되 용긔가나지를 안어서는주저하엿습니다 그러나 언제던지 주커만하고잇스면 밤낫그모양일것임으로잇는용긔를다하야 새해부터는 새로운정신으로새것을보고 배호고 활동하는새사람이되렴니다

## 住宅改良
### 위생뎍견지로
◇醫學博士朴昌薰氏夫人 朴順任女史談

[illegible]선 시작하시아니하고 아즉친녕부모님니하에잇슴으로섬세하게 고치고저하는생각이 잇드라하지라노 자유로 실행될수업는형편인즉 발표할 처지도못됩니다만은 내가 만약지금세간을 나서 새살림을 시작한다면 무엇보다도 조흔긔디를 선택하야집을 짓겟습니다 조선사람은집은 모양잇게 치레를 하야 지으려하면서도 위생에 뎍당한긔디를 택할줄은모릅니다 그리고 집은크게지으려하면서도 긔디는 넓게잡으려고 하지안읍니다 나는집보다도

### 조흔
긔디를택하는동시에반드시터전을넓게잡을 필요가잇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위로 쏭나무를심어서울타리를 만들면 여름에는볼볼 뜰히 피서디를 차커가지아니하여도 시원한생활을 할뿐아니라마당을 다서누에를 친다면그얼마나 큰리익이겟습닛가? 터전만넓으면 닭도 기르고돗기도기르고 여러가지로 가뎡부업을만들수잇슬것이 경제상으로도만흔리익을엇겟지마는 녜가뎡에만드러안커소풍한번을맘노코나가지못하는부인들에게는 흔공원이될것이올시다 체털로산보도되고 체털로운동도되고 집안에서 돈도벌되는 그야말로리상덕가뎡을 일울수가 잇는것이올시다 그리고 터전만넓으면 화초도심고 채소도심어 오유잡곡 가진자미를볼수잇고 어린아이들로하여금 거칠것업시 맘내게할수도잇습니다 그럼으로부터 집보다도 터전을넓게잡읍시다 새해의새집을지으려는 여러분에게 평소에뜻한바를 한말슴을들입니다

## 家畜副業
### 취미를기르자
◇女學校敎師朴勝喆氏夫人 趙勝鎬女史談

우리조선녀자들의 생활은 너무도 몰취미합니다 늙은이부터 어린 하여도 인간다운 자미를부칠데도 한단순합니다 한세상을 산다가업습니다 그나마도 신녀성들은 가트면 피아노들치느니 바요링을하느니 연극장에를 가느니하고 다소간취미를 부칠여지가잇지마는 가뎡에 억매여아이는을기르는 사람이다 가족의뒤를 거두는뎍가틈는사람 날마다 되푸리하는이외에 아모것도업슴으로 무슨자미가잇스며 새로운 즐거움을맛보겟습닛가? 집집마다 뒷것이나마당에 겻은라도잇스면 그것을리용하야 가축을길으는것이 나는보보다 가뎡에들어안커 살림하는이들의 유일한 즐거움이되고 경제뎍으로도 만흔리익이잇슬줄압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집을 새로히짓고 이사를한후마당한모퉁이에닭장을치고닭을길넘니다 내손으로친히 모이를주고고픔을주고하야병아리들이날마다무럭무럭자라나고또한커히들어리재롱부리는것을볼때에가사에수고롭던 몸이스사로 안식을엇는것갓습니다 어린아기들의재롱피우는것을보고 귀여워하지안을사람이업는것처럼어엽분즘생들의 재롱피우는것을보고웃지안을사람이 업슬것이올시다 디리상으로 보아도 목축이성행하는 몽고(蒙古)와 우리가 가장갓가우며 종족의족별(族別)로 보아도 퍽밀접한관계를 맷고잇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말 한필이나는남녀에게드서목축이성행치 못한다는것은퍽리상한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는 가축을만히 길느지도못하면서도 그나마기르는가축은 너무나학대를 하야심지어조선에온 외국사람들이 동물학대방지회(動物虐待防止會)까지 조직하엿다는말을듯게 되니참으로딱한일이외다 금년이 특기해니만큼 우리가뎡에서는 특기를위시하야 일반가축을 적은것이라도 리용하야 만히기릅시다

## 舊慣尊重
### 흉내내는폐풍
◇崔南善氏夫人 玄南嬡女史談

남의것을 조화하고 남의하는모양을 입내내기조화하는이는 조선사람이라 하겟습니다 내것이라고 조흔것도아니지마는 남의것이라고 또한다조흔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조티못한 것이라고 업는다 내여버릴것도 아님니다 조티못한것중에서도 다른데서차커보지못할 조흔것이 잇습니다 「그럼으로나는 조선의녯날풍속이나 습관을하나도 일부러고칠필요가 업다고 생각합니다 의복을 개량하느니 집케도를고치느니

### 자식
이혼(離婚)을하면 부모와갈라서서세간을 나서살어야되느니하고요사히청년남녀들이떠드나봄되다마는

넷것을그대로직히는그가운데에 나는 아름다운것이 잇는줄압니다 다 사람이살어나가자면 자연히불편한 것이 잇슬때는 스사로고처지는것이요 더러서 모든습관이얼마큼 변하여질것이 올시다 일부러 서양사람이 그러케하니우리도 그본을뜨자 일본사람이 그러케하니 우리도 그본을뜨자 하고억지로고치라고할것은업습니다 평소에 늣겻든바로써 새해에희망하는 것중의하나를 삼고하야 이말을드립니다

## 實行爲主
### 생활을개선하자
◇辯護士朴勝彬氏夫人 宋秀景女史談

알거든 실행합시다 실행이데일이올시다 사람이 무슨일을볼론하고 몰라서실행하지 못하는것도 만치만은 알고도행치안는것도역시 그수효가 적지안읍니다 그러나 실행하지아니하면 그아는것은모도가 헛것이되고 맙니다 더욱이의복이나 음식이나주택이나 할것업시 반드시고치지아니하면 안될뎜이만흔 우리조선가뎡 주부로잇서서는 더욱이실행이 필요한줄압니다 번연히 불편한생활인줄 알면서도 남의이목을 꺼려서주커하고 고치지못하는이가 얼마나 만습닛가? 그리고 또한입으로도 생활개선을부르지즈면서도 실행에 대하야는 영을 그리게되는이가 얼마나만습닛가? 그럼으로나는우리가「옷케도를 엇더케고치자」「집을 엇더케짓자」하고 떠드는것이 아모소용이 업슬것으로생각합니다 그저당장에 하나를알면 하나를행하고 둘을알면둘을행할것밧게 업습니다 남이흉을보거나 욕을하거나 자긔편리한대로살면 그만일것이올시다 내나희 비록오십이나 되엿스되마음은 삼십전후청년들과 똑갓습니다

## 子女尊重
### 과자대신완구
◇現代評論社李灌鎔氏夫人 兪庚順女史談

자녀는 우리생명의 연장이올시다 다시말하면 우리의데이생명이올시다 애정으로만 말하여도 누가 그자녀를 잘살고십지안켓습닛가마는 자녀가 잘되고못되는것이 직접부모에게 관계되고 사회에큰영향을 밋치며크게생각하면 국가나 인류에까지 니르게됩니다 그런데가만히살펴보면우리네가뎡에서는 자녀를 귀엽다고 하면서도 그귀여워하는 방법이틀렷습니다 올면먹을것이나 주고떼쓰면 돈이나주고 부모의맘이조흘때는 공연히 아이들을공긔놀리듯 재롱이나보려고 거즛말이나 행동을함부로하야 무의식중에조티못한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뿐아니라 어른들이리성나는일이잇스면 애꿋진 분부리를

### 아이
들에게 하야머리를주어박고 합니다 집안중에 잔능이를기르고 합니다 어린이들이겟지마는 사랑은한다하면서도 너무나무시하는 악습이잇습니다 새해부터 나는우리조선가뎡에서 좀더아이들을 적극뎍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야주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식을계발할만한 교육완구를 사줄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부인들은 남의집 방문을갈때에도 그집아이들의 먹을과자는사가지고가도작란감은 사다줄줄모르며 어머니가 나드리를 하엿다가 집에도라올때에도 과자는사가지고 도라오는이는 만흐나 작란감을사가지고 오는이는드뭅니다 엇더케 생각하면 하로도못가지고 오고라트리는 작란감을 돈만히주고사다주는것이 우수운일갓지마는 어린아이들이 그작란감을 가지고놀다가 오그라트리는것은 그만든모양을 연구하여보려는 지식욕(知識欲)에서나온행동인즉얼는오그라트리는 그만큼 그아이에게는 연구하려는맘이만코 지식이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작란감을 사다주는것은 결단코돈을내버리는것이아니올시다 나는아이들에게 비단의복은 못하여주어도 작란감은 작고사다줍니다

## 男便慰安
### 가뎡평화의책임
◇新聞記者金俊淵氏夫人 金玉璧女史談

남편을깃브게하고뜻을바쳐그로하여곰조곰도가뎡상의고통을맛보는일이업시된다면그는자연히밧게나가서활동할때에즐거운마음으로힘쓰게될것이외다 만약부인된이가밤마다집안에서바가지를긁고 남편이드러올때마다 까다롭게굴고 그남편되는이가 반드시평안히쉬여야될 그가뎡에 드러와서 그러한산스러운광경을당한다면그로말매암아 그가뎡은 사회뎍활동에 장애가얼마나 큰것인가를 깨다러야 하겟습니다 그럼으로

### 남편
을깃브게못하는안해는스스로 회덕으로도 손실을 써자는녀자라 할수밧게 업습니다 이럿케말하면녀자는

남자를 위하여서만 세상에난것이되는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지마는 녀자로서혼인을 안하게될수업고 혼인을하면 가뎡을안일을수업고 가뎡을 일우면자연히 집에드러안저서 집안을 다스리지안흘수 업는것이니 가뎡은녀자에게 유일한 령토가되는동시에그가뎡에잇는 모든이를 화락하게하고 못하는 책임이또한그주부에게 잇는것이요 따라서자긔가뎡을 대표하야 사회의한사람이되야 일하는 그남편을잘섬길수밧게업시되는것입니다 그런즉 녀자는 남편을깃부게합시다 이것이가장큰일이외다

## 改厨急務
### 우리들의사무실
◇幼稚園監朴熙道氏夫人 金熙信女史談

부엌은 녀자의사무실이올시다

이러케말하면 신녀성들은 코웃숨을칠런지 모르거니와 녀자만큼부엌을 잘다스릴남자가 업고 부엌일만큼 인생에게 직접큰관계가잇는 중요한일이 업습니다 케아모리 영웅호걸이라도 주부의손으로 맛드시 시여준 음식이아니고는 그정력과 원긔를 길러 능히활동을 계속하고위대한사업을 성공하기 어려울것이요 장차새사회에 주인공이될귀중한자녀들의 발육을 완전히하고 따러서건전한 정신과쾌활한 긔분을 가지게될그원료도 역시 어머니의 사무실을 정찬음식이 아니라고 못하겟습니다 그럼으로 이만큼큰책임을 가지고잇는부엌을 우리는잘다스리지 아니하면 안되겟다는말이외다 그러타고녀자는 누구든지 반드시부엌에서 사무실을떠나서는 안된다는말이 아니올시다 부엌일 보다도사회에나가서

### 활동
하는것이오히려효과가크다하면그는물론 찬성하지아니할수 업습니다 나는녀자의 대다수를면부엌을 녀자의 사무실이라 아니할수업고 그것이또한 자연의법측으로도압니다 그런고로 되려인 가뎡의온갖것을 개량하기컨에먼커 부엌을곳칩시다 즉도 하로에여섯시간 가량은드러가잇게되는 부엌을 가장위생뎍이요 가장리상뎍으로 개량하여야하겟습니다


馬山

馬山驛前 半島洋服店 電話(八二)

北馬山驛前 海陸物産委託販賣 ㊆南鮮運送社出張所 主任 明 [illegible] 電話一六八番

馬山府元町 南士兼商店

馬山府萬町 府協議員 具麟旭

馬山府萬町二六七 司法代書人 辛容植

馬山府石町 白一書店 電話四一二番

馬山府石町 書籍文具 泰華書館 振替京城一三八六二番

朝鮮物産賣買及委託 普成商會 馬山元町百十九番地 主 李芳

馬山府石町 方瑗蘭 方翠蘭

馬山府富町 靑皮製造時賣 李相潤 電話二二九番

馬山府富町 大東印刷所 主 尹奉根

馬山府元町 魚船倉合浦社

馬山府壽町 嶺南樓 主 妓生 金學伊 吉小冊 金蓮花 金木月

馬山府壽町嶺南樓 咸海棠 權春仙 李蓮波

馬山府午東洞 中華料理 蓬萊館 主 于嘉濱

馬山府萬町 信昌洋靴店 主 丁守鳳 朴英基

馬山府元町 半島商會 主 李鉉濟 電話四〇番

馬山府都町 鐵城旅館 主 朴連守

002242

馬山府倭町 府協議員 黃甲周

馬山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及貿易商 朴明克 電話三〇六番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託販賣 金漢榮 電話七番

馬山府午東洞 醫校 金仙桃

馬山府萬町 南鮮券番

馬山府元町一四二 桂谷齒科醫院 院長齒科醫師 朴英信

馬山府萬町 三省醫院 院長 金炯轍

馬山府倭町 李鉉覺

馬山府外 私立濠信學校

馬山驛前 海陸物産委託販賣並運送業 ㊆南鮮運送社 電話三三四番

馬山府午東洞 裵錫觀

馬山府倭町 府協議員 徐光遠

馬山府石町 產興貯蓄組合

馬山府元町九十一番地 元東貿易株式會社

馬山府石町 諸藥品有名賣藥 醫療器械工業藥品 問屋五行堂藥房 主 金永貞

馬山府倭町 諸紙物文房具事務用品 壽南商店

馬山府元町 米雜穀精白米委託貿易 金斗彥商店

馬山府元町 米穀商 金斗丙商店 取次電話二七六番

馬山府元町 馬山麯子共同購入販賣所

馬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馬山線運送取扱業者組合

馬山府校原洞 金羽坤

馬山府元町 玉麒煥

馬山府元町埋立地 馬山倉庫株式會社

馬山府午東洞 慶南精米所 電話二三〇番

馬山府萬町 府協議員 具聖傳

馬山府本町 府協議員 弘淸三

馬山府倭町 道評議員 金致洙

馬山府元町 日新醫院 院長 河 [illegible]

馬山府午東洞 李鉉敎

馬山府元町 米穀貿易委託賣買 李德三商店 電話二七八番

馬山府倭町 朝鮮料理 漢陽館 電話四二五番

馬山府倭町 李祐植

馬山府萬町 李相滿

洋靴改良 靴經濟靴 運動具外 品類 馬山石町 克山洋靴店 朴淳炎 電話三四二番 振替京城一一六六番

朝鮮慶南馬山 馬山繰綿工場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黃基秀

馬山府石町 綢緞布木洋雜貨 朴成實商店

馬山府萬町 韓正愚

馬山府午東洞 李鎭雨

馬山府萬町 金炯壽

馬山府萬町 金泰鎬

馬山府倭町 李道載

馬山府元町二九六番地 米雜穀精米肥料 金龍周 電話二六六番

昌原郡 召界麯子組合

馬山府富町 陸軍用達精肉商 李淇浩商店 電話三百七番

馬山元町魚市場 海陸物販賣問屋 李壽榮

朝鮮馬山府倭町 酒雜貨商 三角商店 主 李在和

馬山府元町一四一番地 海陸物産委託販賣業 玉昌商會 電話四一九番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李基一商店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託賣買 李振萬商店

# 過去一年 內外日誌(四)

◇三日‖第三十六回日本山林大會를總督府에서開催▲釜山郵便局에〇〇團出現
◇四日‖滿洲在住朝鮮子弟에게서는入月以來豪雨로洪水로同胞의損害三十二萬圓▲「리홀드」氏年年의마루엿음。가도리스키」氏는世界一週中京城來着
◇五日‖京城崇三洞金一善氏家에서學生靑年이軍資金請求▲南朝鮮地方에地震▲內村鑑三賀川豐彥氏等의臺灣民族的解放運動會開催
◇六日‖初雪
◇九日‖瑞典皇太子釜山上陸
◇十日‖京電迎秋門線延長線開通▲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京城運動場에서開催▲元山社會運動八個團體의聯合으로在元社會團體懇談會를開催▲金泉郡에서東拓小作料의數倍增徵으로千餘小作人이農監家에殺到▲武昌陷落南軍入城

## 十月

十月 英帝國會議 授恩洞利川拳銃襲擊

◇十一日‖金虎門事件宋學先控訴公判開廷▲瑞典皇太子殿下入京
◇十二日‖木浦警察署에서務木靑年聯盟定總代議員四名檢束
◇十三日‖在日朝鮮人勞働總同盟第一回倍大委員會開催
◇十四日‖春川各團體의日人久武常次의少年私刑事件聲討會禁止▲〇〇團員金天鳳의控訴判決平壤에서言渡
◇十五日‖朝鮮長老敎會總會는宗敎法案反對委員을東京에派遣決議
◇十六日‖鐘路基督敎靑年會館에서生活問題講演中騷動으로後門層階 崩潰 學生一名即死六名重傷▲龍城郡砂器面에〇〇團員出現▲日本大阪住吉區에서勞働者阪井伊之助가金錢請貸의不應으로朝鮮人沈萬源等을短刀로刺傷一名即死二名危篤
◇十七日‖全益山靑年聯盟創立
◇十八日‖韓建團員四名逮捕▲永同靑年聯盟創立

◇二十日‖大韓統義府義勇軍事件金昌鎬等의公判平壤에서開廷▲利川郡栢沙面에서拳銃靑年이警官駐在所와面所를襲擊面書記一人射殺▲新興科學研究會發起總會開催▲中國政府가日中通商條約滿期通告
◇廿一日‖平安北道警察에서滿洲에出張하야某重大犯人을逮捕▲駐中露國大使「카라한」氏辭任正式通告
◇廿二日‖「알메니아」에强地震死者三百
◇廿三日‖京畿天然洞 思想團等地의土窟貧民五十餘名逐出
◇廿四日‖京城體府洞韓晉錫氏家에拳銃靑年이金錢請求▲開城自由와가朝鮮共產黨事件의在監同志慰問義捐金을募集▲鏡城에思想團體前衛同盟創立
◇廿五日‖京城授恩洞에서拳銃靑年이大成號與當舖를襲擊主人兄弟를射殺▲咸南永興永新靑年夜學事件裴東健公判開廷▲忠北鎭川郡에鷄卵가튼雨雹이降下
◇廿六日‖平壤勞働團體聯合會勞總會의發起로勞働運動統一問題▲定州高峴面巡査金雲鳳은洪大吉을〇〇團員으로誤認銃殺朴烈同犯義烈團員金重煥에게東京에서懲役三年言渡
◇廿八日‖拳銃靑年一人을大島町에서逮捕▲水原警察署에서靑年一名을檢擧 證據書類多數押收▲韓建團員五名檢事局에送致▲江景製絲工百餘名은時間과勞賃問題로總罷業▲中國上海市民이軍閥勢力驅逐大示威運動開始
◇廿九日‖大同郡龍山面小作人數百名이水利組合水稅不公平으로郡廳에殺到▲平壤警察署에서〇〇團員二名을逮捕
◇三十日‖三淸洞에서重大犯一名逮捕▲江華郡에서拳銃靑年一名逮捕▲江景大和町陳公洙典當舖에拳銃靑年突入 金錢强請後潛跡▲釜山少年私刑事件으로三山醫院을襲擊한五人의公判開廷▲汎太平洋學術會議를東京帝國大學講堂에開催▲世界全體의經度를統一코저世界各天文臺가測定에着手
◇卅一日‖授恩洞事件有力嫌疑者一名을東大門外에서逮捕▲龍山署에서도靑年一名檢擧▲長湍郡牧甘面茂山里張興家에靑年一名이拳銃으로亂射軍資金을請求타가逮捕拘留中破壁脫走

## 十一月

◇一日‖專門學校聯合庭球大會는韓一銀行코트에서開催▲平壤警察署에서拳銃 短刀靑年二名逮捕▲黃海道殷栗郡長遭難事로學生二名逮捕▲日本留學朝鮮人學生의新興科學研究會創立總會는早稻田에開催
◇二日‖六十萬歲事件의學生一名의公判開廷▲海州에서授恩洞事件嫌疑者로靑年一名檢擧▲滿洲警察署에서參議府員二人逮捕
◇三日‖鐘路警察署에서拳銃犯嫌疑者李某는取調中某重大事件發覺▲金虎門事件宋學先의豫審公判開廷
◇四日‖連城郡多斯面金谷洞金德三家에拳銃靑年侵入▲平壤電氣의府營協定成立▲中國九江은南軍에게陷落 南京戒嚴令發布▲訓民正音頒布第八週甲에該當함으로新民社主催로「가갸날」祝賀紀念會開催▲金明變私刑者米國人許時模上告公判開廷▲姜宇奎事件共犯韓興根滿期出獄▲平原警察署에서軍大犯人逮捕
◇六日‖專門學校蹴球聯盟戰開催▲朝鮮日報社後援純正朝鮮音樂舞踊會開催 ▲東小門 安城利川授恩洞拳銃事件의主犯李壽興을利川署에서逮捕▲朝鮮救世軍士官八十餘人이삭三大將朝鮮訪問을機會로待遇改善陳情▲東京에朝鮮勞働組合과赤衛勞働同盟의合同大會開催▲中國政府는中白通商條約의滿期無効를通告
◇七日‖開天節임으로大倧敎에서慶賀式擧行▲通川郡順鎭面金寅濟家에拳銃靑年二名突現▲成川警察署長舍宅에爆彈投擲嫌疑者六名逮捕▲亞細亞國際聯盟은中、土、波斯、阿富汗의五國代表의協定으로成立
◇九日‖東亞日報筆禍事件上告棄却▲訓民正音頒布第八週甲紀念講演會를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開催
◇十日‖金虎門事件宋學先의控訴棄却▲木浦織布工場男女職工百四十餘名盟罷▲端川、城津、吉州三郡主義者聯合으로太陽會創立
◇十一日‖共產黨宣傳嫌疑犯金鳳國公判은平壤에서開廷▲洪川麟蹄에서拳銃靑年이富豪擊▲全群山精米職工百餘名은賃金問題로總罷業
◇十二日‖日本若槻首相告訴는不起訴로決定▲「와바」에서共產黨革命亂勃發 兩總督擊殺
◇十三日‖東亞日報筆禍事件으로主筆宋鎭禹氏入監▲加平郡北面金卿仁家에拳銃靑年三名이金錢奪去
◇十四日‖間島在住天道敎徒가三一共進會組織
◇十五日‖軍備團員金夏源控訴棄却▲咸興各團體協議會開催
◇十六日‖間島局子街에서〇〇團이軍資募集
◇十七日‖萬歲學生에게各懲役一個年 五年間執行猶豫言渡▲黑旗聯盟事件七人滿期出獄
◇十八日‖救世軍紛糾問題로救世軍士官學校男女學生二十八名盟學▲軍資募集計劃犯趙晩植等은最高懲役一年半判決
◇十九日‖洪原農民懇親會開催
◇二十日‖全北靑年聯盟大會開催▲端川靑年聯盟創立▲「外바」에서共產黨大檢擧二千餘名逮捕
◇廿一日‖京城府協議員選擧▲民衆科學研究會創立總會開催▲全北記者團總會開催▲在東京朝鮮人各勞働團體의東部朝鮮勞働組合成立
◇廿二日‖韓建國事件金明福等四人은最高八年最下八年懲役으로判決言渡▲中國張宗昌氏가動員令發布 直時南下開始
◇廿三日‖英國炭坑夫罷業終了
◇廿四日‖大同郡三菱炭坑大井崩潰로鑛夫三名死傷
◇廿五日‖東京留學生雄辯大會를東京市外千駄谷修養團樓上에서開催二十七名檢擧
◇廿六日‖大分縣在留朝鮮人勞働靑年會組織
◇廿六日‖中國安徽省獨立宣言▲中國國民政府는十二月十日外지武昌移轉을可決
◇廿七日‖平壤洋服職工의賃金問題로全平壤職工同盟罷業▲義州郡州內面에〇〇團突入▲間島在住同胞가志仁靑年總聯盟을局子街에創立▲中國顧維鈞內閣總辭職
◇廿八日‖米國世界一週團三百餘名入京▲在東京一月會解體
◇三十日‖江界禿魯江津船顚覆溺死三十四名行衛不明三十二名▲軍備團員金道淑이咸北好仁面仁山里渡船場에서被逮▲漆谷郡石積面의炭量二億噸以上되는炭鑛을金振生氏가許可를엇다▲全朝鮮에朝鮮人在監者總計一萬三千二百八十三人

十一月 한글날作定 자바의革命亂

## 十二月

◇一日‖安州安興、栗山、日新三工場女工은女工組合加入問題로總罷業▲中國張作霖은安國軍總司令에推戴
◇二日‖釜山電氣料金은引下發表▲中國陝西省의國民軍은北伐軍과聯絡하야軍事行動開始▲廣東軍工人隊가福建占領
◇三日‖京城北米倉町에一人凍死▲日本神奈川縣三浦郡에大火로全燒三百餘戶
◇四日‖京畿道警察部는黃金町에서靑年二名檢擧▲京城府協議員不正投票問題로有權者十數名引致取調筆跡檢査
◇六日‖共產主義宣傳人金鳳國의公判은平壤에서開廷
◇七日‖群山港沿海에서漁船三十四隻이顚覆 溺死者十三名▲木浦府務安通에火災로全半燒二十五戶▲全南靈光郡中外興業會社의收納員과小作人三百名間에大格鬪▲安岳明倫講習所事件李秉許全武吉等의判決言渡▲平原 德川間에서統義府員이德川警察署員과衝突府員一名被逮
◇八日‖安岳明倫講習所事件李秉許全武吉等四氏는保釋▲和順郡綾州公立普通學校의月謝金滯納으로兒童八十餘名停學▲元山木工同盟은賃金問題로總罷業▲全南麗水郡黑山島近海에서漁船十六隻과乘組員八十三人은去處不明▲東京市電氣工은待遇改善問題로八百餘名罷業 市電自治會는職工一萬五千名罷業決定
◇九日‖▲共產主義宣傳嫌疑者金鳳國無罪判決▲日本勞農黨結黨式

## 十二月

十二月 江界의溺死者多數 日本의無產黨成立

◇十日‖鎭川警察署搜査隊가統義府員二名과格鬪後逮捕▲洞東公立普通學校의月謝未納으로三百餘名兒童停學▲
◇十二月十日‖東京市電從業員爭議解決
◇十一日‖平原警察署에서參議府員金學山逮捕▲江界禿魯江에서渡船顚覆 乘客五名溺死
◇十二日‖論山市場에拳銃靑年二名이突現▲元山 徐源、安邊의社會運動者로統合한單一思想團體三角前衛同盟發起會開催▲鐘路署에서靑年二名檢擧▲元山東京間直通航路開通▲中國廣東政府一行漢口入城▲羅馬尼亞皇帝退位皇后攝政
◇十三日‖釜山郡西面舞鶴洞에拳銃靑年二名이出現▲平原에서正義府員金尙浩를逮捕
◇十四日‖德川郡鱉島面大同江上流渡船場에서覆船 乘客三人溺死▲中國馮玉祥이陝西省西安을占領
◇十五日‖義軍府員崔琴寶은率天銀事務에서逮捕▲大田郡本町에서拳銃靑年이與當舖襲擊
◇十六日‖丁抹內閣總辭職
◇十七日‖全北運動者四團體聯合委員會를裡里靑年會館에서開催▲〇〇黨事件南忠烈은新義州에서一年懲役二年間猶豫로判決言渡▲中國顧維鈞內閣辭職▲中國南軍이宜昌占領▲獨逸「맑스」內閣瓦解
◇十八日‖慶北義烈團事件李鍾岩等의公判開廷
◇十九日‖京城附近靑年團體聯合懇談會開催中에中止▲中國浙江省自治政府成立
◇二十日‖慶北義烈團事件高仁德은獄中逝去▲海州社會團體聯合大討論會를海州靑年會館에서開催
◇廿一日‖群山府尸內精米所選米工五十餘名賃金問題로罷業▲平壤에서借家借地同盟을發起▲群山府榮町에서拳銃靑年이軍資金請求
◇廿二日‖十月以來로이제外지間島方面에移住하는同胞가每日二百名以上▲平壤勞働運動八個團體聯合大演說會開催▲忠淸全羅等道를橫行하든拳銃靑年趙甲貞을群山署에서逮捕
◇廿三日‖義勇團員金泰源平壤刑務所에서死刑執行▲新義州警察署에서〇〇黨員尹戰元을逮捕檢事局에送致
◇廿四日‖不名譽의朝鮮全國內富豪에게脅迫狀送致▲中國國民軍은洛陽總攻擊을命令
◇廿五日‖天皇陛下崩御▲皇太子殿下御踐祚改元昭和
◇廿六日‖第五十二議會開院式
◇廿七日‖中國張作霖氏入北京
◇廿八日‖慶北義烈團事件李鍾岩等에게懲役言渡最高 李鍾岩懲役十三年言渡▲某事件揭載禁止
◇二十九日‖本町署는市外孔德里를包圍하고徐世忠氏一家族을檢擧

# 丁卯略史(一)

無窮에서無窮으로가는이空間에過去에幾萬年일는지未來에幾萬年일는지촉할수업거든이所謂丁卯라는이해가또幾千百回이것을누가알며이丁卯라는해에發生된事實이또얼마인것을누가알바이랴그러나이世界의가장오랜記錄이잇는우리의紀元으로조차서七十一回의丁卯라는해를맛고보니過去의이해에모든記錄의大要를다시뒤켜서推往知來의明鑑을삼을必要가잇다한다(南川散人)

△紀元一七四〇年(箕朝孝王元)王叔譚이國政을代攝하다(中國周定王十三)晉의畝稅를始收하다
△紀元一八〇〇年(箕朝壽聖王二七)定襄人의國珍이太師가되다(中國周景王十二)楚가陳을滅하다
△紀元一九二〇年(箕朝導國王十九)王이昇遐하니子赫聖王이立하다(中國周威烈王十二)中山武公이始立하다
△紀元二一六〇年(中國漢文帝六)賈誼가治安策을上하다
△紀元二二二〇年(馬韓明王三一)王이昇遐하니子孝王이立하다(中國漢武帝元鼎三)函谷關을新安에옴기다
△紀元二四〇〇年(羅脫解王十一)朴氏貴族이州郡을分理自에게政事를委任하다(中國漢明帝永平十)蔡愔等이佛經과迦葉摩騰竺法蘭을得歸하다
△紀元二五二〇年(羅伐休王四)州郡에命令하야農時의土木役을禁止하다(中國漢獻帝中平四)陳寔이卒하다
△紀元二五八〇年(高東川王二一)平壤에移都하다(羅助賁王十八)王이昇遐하니同母弟沾解王이立하다(濟古爾王十四)天地를南壇에祭하다(中國蜀漢後帝延熙十)魏曹爽이國政을專擅하다
△紀元二六四〇年(羅基臨王十)新羅로復號하다(中國晉懷帝永嘉元)燕慕容廆가大單于라自稱하다(西紀三〇七)『리기니우쓰』가帝位에나아가다
△紀元二七六〇年(高長壽王十五)平壤에移都하다(濟久爾辛王八)王이昇遐하니子毗有王이立하다
△紀元二八二〇年(羅炤智王九)始祖生地奈乙에神宮을建設、四方의郵驛을始置、月城을修葺하다(日本顯宗天皇三)天皇崩(中國武帝永明五)魏高允이卒하다
△紀元二八八〇年(高陽原王三)白岩城을改築하다(中國梁武帝太淸元)帝가同泰寺에捨身하다(西紀五四七)羅馬人이羅馬를恢復하다
△紀元二九四〇年(高嬰陽王十八)百濟를치다(日本推古天皇十五)小野妹子를隋에보내다(中國隋煬帝大業三)五月에吐谷渾高昌이入貢하다、十月에裴矩가西域을經略하다


## 馬山

馬山府傍町 宋錫守
馬山府萬町 東陽洋襪工場
馬山元町晉樂亭 金玉仙 金蘭仙
馬山府石町 保生堂藥房本舖 主 張仲變
馬山府午東洞 沈又春
馬山驛前 余日光運送店 主任 朴泰允
馬山府午東洞 河聖午
馬山府午東洞 吳翡翠
馬山府校原洞 潘小春
馬山府午東洞 李琪花
馬山府午東洞 鄭瓊波
馬山府午東洞 金瑾銖
馬山府午東洞 金亨子
馬山府元町殖銀支店前 朝陽菓子店 電話四四五番
馬山府萬町 張泰鉉
馬山府元町 宋璿旿兄弟商店
馬山府元町 崔景軾
馬山府壽町 綢緞布木商 黃邵奎
馬山府上南洞 鄭明魯
馬山府石町百八番地 金銀細工 開元商會 金相魯
馬山府石町 合山洋靴店 主 金洙命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託買賣業 金相基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 金根守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 金尙東
馬山壽町南海樓內 妓生 裵秋月
馬山府傍町 三信洋服店 主 全丙五
馬山壽町日鮮亭內 孫蓮花 金梅紅 金梅仙 權紅蓮 金賢子 沈山玉 金秋月

馬山府富町公設市場 牛肉商 李尙文 電話四〇五番
馬山府傍町 徐錫東
馬山府傍町 李起燮
馬山府午東洞 府協議員 張在軾
馬山府石町 吉興商店 主 李順吉
馬山府校原洞 徐丙武
馬山府壽町 醉仙亭 主 李貞順
馬山府元町一四二 綢緞布木商 郭泰吉
馬山府壽町 穀物 朴圭誠商店
馬山魚市場 海產物販賣商 明道烘
馬山府元町 米穀商 黃奭鍾
馬山府壽町 穀商 朴順明店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千鶴權
馬山府元町一四二 司法代書人 金垠守
馬山府富町 綢緞布木 ゴム靴商 崔永漢
馬山府午東洞 藝妓 金菊姬
馬山府午東洞 徐相源
馬山府壽町 相穆齒科醫院 院長 高相穆
馬山府新町 馬山倍達學院
馬山府萬町二七八 釜山旅館 主 鄭命富
馬山府新町 南璣祐 喪中缺禮

## 谷城

谷城郡守 兪鎭昌 外郡廳員一同
谷城公立普通學校長 桐田春吉 外職員一同
石谷公立普通學校長 中田眞一 外職員一同
谷城面長 梁春植 外職員一同
梧谷面長 吳基泳 外職員一同
木寺洞面長 李相赫 外職員一同
竹谷面長 李鍾安 外職員一同
石谷里 金在宇
石谷里 吳炳岳 吳鍾悳
谷城印刷所
谷城邑內 永興堂乾材局
谷城邑內 光陽旅館
谷城邑內 浴川理髮館
谷城邑內 丁璟夏
谷城邑內 潭陽旅館
谷城邑內 中華料理 北京園
谷城邑內 戶田文七
谷城公醫 申錫浩
谷城邑內 曺台煥
梧枝里 安圭善

谷城邑內 島崎商店
梧枝里 趙漢植
德山里 柳善卓
谷城靑年會 谷城幼稚園 谷城勞働會
牧川里 盧海崙
竹岸里 朴炳晙
太平里 孫泰鉉
梧枝里 金伯權
英雲旅館 姜熙柱
鳳停里 趙鏞殷
谷城邑內 浴川旅館

## 牙山

京南線溫陽溫泉驛 ㊅ 大昌運送店 主 尹河英
牙山郡仁州面貢稅里 紳士 崔益秀
牙山郡仁州面貢稅里 紳士 姜斗永
牙山郡靈仁面蒼洞里 面協議員 張斗鎭
牙山郡仁州面貢稅里 賣酒屋主 林正默 酌婦 朴蓮花
牙山郡仁州面貢稅里 靑年會長 韓奎東
牙山郡仁州面金城里 參事 池錫範
牙山郡廳 郡守 洪祐崇
牙山郡廳 庶務主任 鄭雲成

京南線溫陽溫泉驛前 保生堂乾材藥房 主 李達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廣興洋服店 主 洪在一
新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牙山郡溫井面事務所 職員一同
牙山郡溫井面楊谷里 紳士 韓陽燮
京南線新昌驛前 京南運送部
牙山郡拂方面回龍里 紳士 李熙完
京南線仙掌驛前 紳士 鄭萬喜
京南線新昌驛前 運送業 穀物商 雜貨商 李康源 李康潤
牙山郡仙掌面事務所 會計員 朴炳喆
仙掌金融組合 理事 金容燮
牙山郡鹽峙面 面長 李萬鐘
京南線仙掌驛前 合名運輸組 主任 崔仲喜
牙山郡新昌面新達里 紳士 李康濟
牙山郡新昌面 職員一同
牙山郡仁州面新城里 面協議員 吳玄默
牙山郡仁州面貢稅里 綢緞布木雜貨商店 金仙寬
京南線溫陽溫泉驛前 金奉龍自轉車商店
牙山郡仁州面貢稅里 雜貨商 金知澤
牙山郡靈仁面 職員一同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寫眞館 主 柳秉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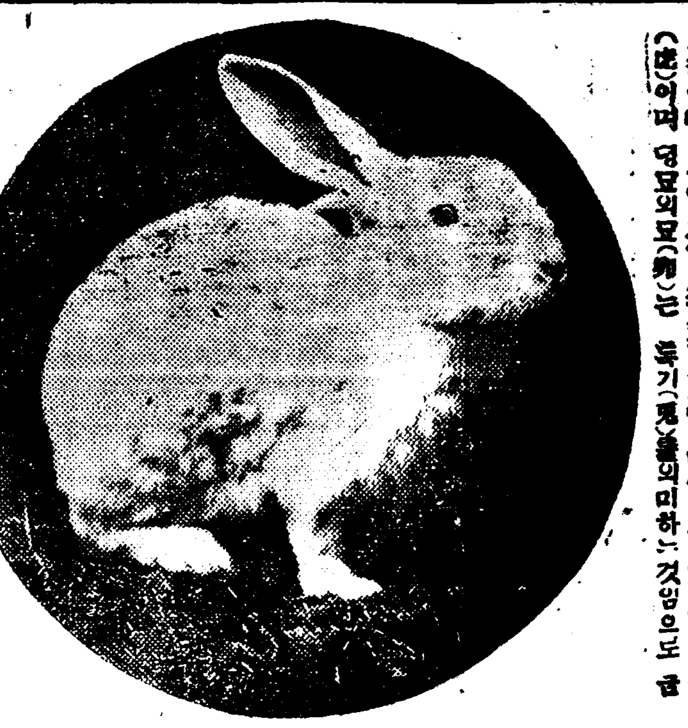
## 楊市

龍川郡楊市 殖產組合
龍川郡楊市 楊市釀造 雜貨貿易 東順海 電話(公)又八(卜)
龍川郡楊市 三橋川水利組合
龍川郡楊市 楊市水利組合
龍川郡楊市 崔相鳳
龍川郡東下面三仁洞 文鳳柱
龍川郡東下面法興洞 金麗鉉
龍川郡楊市 龍陽醫院 醫師 朴永湜
龍川郡楊市 金致源
龍川郡北中面元松洞 張泰潤
龍川郡北中面元松里 張箕根
龍川郡楊下面勿倉洞 張明植
龍川郡楊下面立岩洞 金時晃
龍川郡楊下面立岩洞 梁在律
本報楊市支局 記者 金命禮
龍川郡楊下面立岩 朴承夏
龍川郡楊下面 面長 白樂柱
龍川郡楊下面立岩 白世輔
龍川郡楊市 張大潤
龍川郡北中面元松洞 張根維

# 톡기이약이 (一)

◇京城帝國大學敎授 森爲三

병인(丙寅)의 해년도 다지나가고 이제부터 뎡묘(丁卯)의 새해이다 동양의간지(干支)로보아 병인의인(寅)은호랑이(虎)이며 뎡묘의묘(卯)는 톡기(兎)를의미하는것임으로 금년은톡기의해이다 그럼으로톡기해의첫날에 톡기의이약이를 들음이매우 자미잇스리라는생각으로 경성제국대학교수 京城帝國大學敎授 삼위삼(森爲三)씨의 이약이를이에소개하는바이다



금년은『톡기』해 임으로『톡기』이약이에대하야 말하겟습니다

## 자양분잇는 톡기고기

一、『톡기』고기는 즘생의 고기가운데에 데일웃듬인단백질(蛋白質)이가장만코 또한기름이 그리만치 안은外닭에 닭고기와가티 소화(消化)가잘되어 모든고기중 소화되는뎜으로보던지 자양분이 풍부한뎜으로 보더라도 가장웃듬이외다 그는 독자여러분에 톡기고기 잡숫기를권하고 십습니다 이아래에 커톡한표는 미국국무성디방국가뎡경제과(米國國務省地方局家庭經濟課)에서 조사한여러가지 고기의성분(成分)과『카로리』의 분량을 써노흔것으로 이것을보면 나의긴설명을 보는것보다 간단하고명백하게『톡기』고기가 웃듬임을알수가잇슴니다

| 고기종류 | 水分 | 蛋白質 | 脂肪 | 鹽類 | 한『폰드』의 카로리量 |
|---|---|---|---|---|---|
| 톡기고기 | 六六、八 | 二一、五 | 一〇、二 | 一、三 | 八七四 |
| 닭고기 | 七四、八 | 二一、五 | 二、五 | 一、一 | 五五五 |
| 소고기 | 六六、五 | 一八、七 | 一四、九 | 〇、九 | 九三五 |
| 송아지고기 | 七一、七 | 二〇、〇 | 八、〇 | 〇、九 | 七二〇 |
| 양고기 | 六七、九 | 一四、六 | 一七、九 | 〇、九 | 一、〇五五 |
| 도야지고기 | 五四、二 | 一四、三 | 三〇、二 | 〇、八 | 一、五五〇 |

이유에 그러한 표와가티『톡기』고기는 대개 닭고기와갓습니다 그런가닭에 닭고기와『톡기』의산출증량과 료리에쉬운한 고기의중량도 거의가 뎡데이상에 귀졍한 가뎡경제과에서 조사한비에의하면

| 品種 | 兎(飼兎種)(본토종) | 닭(토종)(본토종) |
|---|---|---|
| 一、一羽의重量 | 五、八 | 五、八 |
| 二、료리하는중 먹지못하게되는중량 | 二、一〇 | 一、九 |
| 三、骨(內臟毛皮)及羽毛等을빼고남는고기중량 | 一、七 | 二、七 |
| 四、食用全量 | 一、七 | 一、八 |

으로되엿다 그러나 우리는순전한 고기뿐만아니라(다)의 닭가죽과 커근뼈에무른고기도 먹음으로 실상먹는고기의 분량은더욱만흔데『톡기』와닭은그분량에 큰차이가업습니다 또한 가격은『톡기』편이싼外닭에 경제상으로보더라도『톡기』고기먹기를권하고십습니다

## 二、구미의도육식용

북미합중국에서는 구라파대전쟁外지는 야생『톡기』의 고기는 먹엇스나 집에서 길으는『톡기』의고기는 먹지안엇습니다 그리던것이 구라파대전쟁이 시작되자 식량문데(食糧問題)가 이러나고 고기갑도 대단히비싸게되닛가닭에 집에서 길으는『톡기』의고기도 처음으로 먹기를시작하엿고 따라서 정부에서도만히장려를하야 오늘날과가티 만히먹게된것입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는 오래전부터『톡기』고기를만히 식용으로쓰고 영국에서는 매년 자긔나라에서 삼사천만마리식 생산이됨에도 불구하고 일천구백십년에는 호주(濠洲)로부터 야생『톡기』고기의 냉장(冷藏)한것과 또한피혁(皮革) 사천오백만원어치를수입한외에 백이의(白耳義)나라에서 집『톡기』고기 일천만원어치를수입하엿습니다 또한불란서에서는 매년시장에나오는『톡기』가 빌억만마리라고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톡기』를먹는지 알수가 잇습니다

## 三、료리법

『톡기』는가죽을벗기고 내장을꺼집어낸후 고기를냉수로 깨끗이 씻고다시부드러운수건으로 닥근후 여덜조각이나 또는 열조각으로잘느는바 위선다리를 쎄여낸후 뒷다리는 두조각으로나누고 몸둥이는네조각으로 잘음니다 (가뎡경제과료사)

(가)국쓰리는법 고기가 부흔것을 삶은국물한잔에 우유석잔을붓고 나물(파、미나리)얼마와 소곰한수가락에 호초를 조금석거 쓸키시작할때에 너코다시 밀가루를 물에타서 네수럭을너어『습』이나『크림』가티 흘흘하게되기까지 쓰리다가 다익으면그대로 먹습니다

(나)『푸라이』만드는법 고기를 알마춤크게 베여가지고 세『폰드』접을 물에 너어 고기가연하게되기까지 천천히 오래동안 쓰리다가 감자 한배추 둥근파(玉葱)에 소곰두수가락과 물탄밀 두세수가락을 너코쓰리는데 그국물이 걸직하게되기까지 쓰립니다

그외에『코롯케』『챠슈』『파이』『사랏도』등여러가지를만드는법이잇스나 전부양료리 임으로 우리동양사람은 이제로부터 톡기료리법을 동양뎍으로 연구하야 맛잇게먹도록하지 안흐면안되겟습니다

# 한글 바보사자 (二)

예ㅅ날 어느큰산림중에 사자한마리가 살앗읍니다 이사자는 그산림에서 왕노릇을하얏읍니다。언제든지 배만고프면 풀ㅅ속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 어흥!하고 한마디만지르면 만사태평이올시다。그울음ㅅ소리가 한번산천을 울리면 산중에작은짐승들은 그속에서 풀ㅅ속에서 뛰어나와 허둥지둥 이리저리로 뛰어다닙니다。그것을보는대로 한번 발로움키어 물어뜯으면 입만한짐승은 꺽소리도못하고 죽어버리어 사자왕님의 차반이 되엿읍니다。

× ×

그러나 혜구한세월에 잡아먹는 사자의욕심은 한이없고 잡아먹히는 짐승은 한이잇는지 한마리두마리 자처없어져서 지금와서는 산중에 사자외에는 다만두마리의 가련한 양수사슴이 있을뿐이올시다。양두마리의 양주사슴은 오래 도망하기에 기운이지치고 못볼어파리하야 잘개아나지도 못하게되엿읍니다。그리하던중 하로는 우연히 사자왕님눈에 들키엿읍니다 암사슴은 벌벌떨면서 여보 이것을 어쩌면 좋단말이오 인제는 할수없이 사자왕님의 밥이되는구려하며 땅、꺼지게 한숨을쉬니 수사슴이、그런못생긴소리 마오。세상에 약한놈은 다죽으라는 법이라오。어서 빨리달아납시다。하고 둘도산으로 쏜살같이 도망하야 맛힐새 친행오 보다 사자의 독한이빨을 벗어낫읍니다。

# 都市의얼골

金昌述

一

무덤에서 뛰여나온 녀자의 얼골처럼
무서히질린 都市의얼골이여
영양부족에 자동차소리에
부서울는낫작들이 큰길에쓸
다니면,
그리도조흔듯이 헛웃음치는
가련한풀악산이어

二

녀커분생활에 파리한몸을
몬지속에 기어가며
화려한비단에쌋힌 염상이즌
철누지의등신
이것도 참된사람의마음이냐
고혹된벌레냐
아첨을꼿짓고도 화비단옷를
걸치인
都市人의얼골의거짓이여 그
립ㅅ여

三

지화냄새가 코에어가는은행
의공긔에
어
발개진 두눈방울이 되진되
딸닥 딸닥 딸닥 딸
닥
넘어가는소리에 마취된
代人의불상한 마음아
버려라 말어라 조급된인간
성에 헤룸근그것을 바랄수
잇느냐

四

내버린여송연을 주어먹으려
다 어더마진 거렁지와도가
티
이세상은그만러 발달된것을
가슴에삭이렴으나
다봇 못해아서 배알는
령안시대이니 두어라 그마
움보지도말고 내졍을차질연
이다
한분놓안이라도 한순간이라
도 어서
大衆의 본얼골을보기위하야

五

오 얼마전부터 이질을거러
왓것만
거짓에부푸른얼골이 그얼골
이
비둥마진 당나귀처럼 쓰덕입
은의연코나
그러나 세계는변동되는데
각은터지는데
이얼골의운명이 몃칠이냐 都
市의明滅이여
(흙더간詩篇『都市』가온데서)

# 童話 꾀꼬리와나뷔 (一)

小波 方定煥

어느들에 어엽분나뷔가 한마리살고잇섯습니다 나뷔는 날마다 아츰써부터 꼿밧헤서 산으로 동산에서꼿밧흐로 써돗아보며 넷옷쏫이고 날너다니면서 왼종일 춤을추어 여러가지꼿들을뒤해주며지내엇습니다

하로는 어느포근한 잔듸밧헤 안저서 써뜻한볏을 쪼이면서 이런생각을하엿습니다

『녀신(女神)께서는 나를보시고 질겁게춤을추어 만흔꼿들을 깃겁게해주는것이 너의직책이다!』하섯다 나는오늘지금가지 모—든꼿들을 모다깃겁게해주기위하야 애써온것하여왓다……』

『그러나 엇던날이던지좀더조흔일을햇스면조켓다』고 생각하엿습니다

그후부터는 날마다 그더조흔일을생각하고만잇섯습니다 나뷔는

어느날밤이엇습니다 그날도왼종일지미롭게춤을추엇기째문에 커덕써가되닛가몹시고단하여서 왼족이 배추밧노—란꼿자리에누어서 콜—콜—가는게코를골면서잠이들엇습니다

그리고이런꿈을꾸엇습니다 나뷔는 저와가티 이리저리펄펄날너다니느라닛가 어느틈에 전에 보지못하던 모르는곳에니르럿습니다 거긔는 쇠골가티쓸쓸스러운곳인데 나족한 언덕우에 조고마—한집이한채잇섯습니다

『에그? 엇던케이런곳에로왓슬가』 하고나뷔는이상히 생각하엿습니다 그리고 언뜻보닛가 그 조고만집뒤뜰에는 동백나무가서잇고 나무에는 쌀간동백꼿이 만히피여잇는고로 나뷔는그꼿우에안저서 날개를 수이고잇섯습니다

써뜻하게 볏만쪼이고 동네도 조용하고 이조고만집도 사람업는집가티조용하엿습니다

그리더니 이뷘집가티 조용하든집에서 나즉하고 근심스런소녀(少女)의소리가 들리엇습니다

『이애민수야 얼른나어야지약을먹고 얼른나어야 아니하니? 네가이러케알어 누엇기만하면 누나(姉)가 쓸쓸스럽지아느냐?』

분명히 병든동생의 머리맛헤안저서 근심하는 소리엇습니다 그러닛가 그병든동생이 괴운업는말로대답하는것이들렷습니다

『누나 나는 약먹기 실혀요! 써서엇더케 먹으누 약보다도 나는 동산에가고십허요 살구꼿하고 복사꼿 피엇겟지요 응? 누나 작년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새우는 소리도듯고 나뷔가 날너다니는것을 보고십허요 아아어서 동산에를가보앗스면……』

나뷔는 이가는다란 불상한소리를듯고 퍽마음이 슯혓습니다 잠이쌔여 눈이쪄엿습니다 별서 날이밝아서 세상이훤—하엿습니다 나뷔는 지난밤에꾼 꿈을 다시처음누터 차근차근히 생각하엿습니다

생각할스록 어대인지 분명히 그런불상한 어린남매가 잇는것가티 생각되엿습니다

그래서 나뷔는 각금각금놀러오는동모 꾀꼬리에게 차저가서 그꿈이약이를 하엿습니다 그러닛가 마음조한꾀꼬리도 그말을듯고『그럼분명히 그런불상한남매가 어던지 잇는모양일세』하엿습니다 그리고 다시『그알는동생이 새소리를듯고십고 나뷔를보고십다고하드라니 우리가어대인지는 모르지만 돌이차저가보세그려』하엿습니다

나뷔와 꾀꼬리는 꿈에본집을 차즈려나섯습니다 그러나 어대어느곳에 그런집이잇는지 아는수가잇겟습닛가 하는수업시 쎌쎌매다가 마참 놉히떠서멀리날너오는 기럭이를맛낫습니다 하고 먼길을가는기럭이가 부르는소리를듯고 나려왓습니다

『남쪽에서오시는길에 혹시언덕우에 조그만집에 어린소생이알어누엇고 누의가 울고잇는불상한남매를보지못햇슴닛가 우리는 그집을차저가려고 그럽니다』

하고꿈이약이를 자세하엿습니다 기럭이는 그말을듯고

『아아알고말고요 착한남매가 불상하게근심을하고잇슴니다 어서가보십시요 여긔서 커—남쪽으로 쏙—가서 아마십리(十里)는될걸요 여긔서 곳장가면 그언덕잇는 곳이보입니다 어서가보십시요』

하고아르켜주고 북쪽 나라로갈길이 멀고급하다고 인사하고갓습니다 나뷔와 꾀꼬리는 깃거워서 한숨에 갈듯이남쪽으로날너갓습니다

한참이나 가닛가 언덕이보엿습니다 그언덕우에는 꿈에보든 그 조고만집이잇고 뒤뜰에는꿈에안젓든 동백쏫도피여 잇섯습니다 엇더케도 반가운지

『여긔다! 여긔다!』

하고 나뷔는 꾀꼬리를다리고 동백쏫나무에안저서

『아가씨 아가씨문열어주십시요』하고 불럿습니다

그러나 아모리불러도 방속에서는 아모대답도 업섯습니다 그러닛가 꾀꼬리가『아모리불른들 알아들을리가 잇나』하고 어버에는 자긔가 그어엽분목소리로

『꾀꼴 꾀꼴 꾀꾀꼴……』

하고 노래를불럿습니다 그러닛가 방속에서 깜작놀라는듯한 소리가나더니 방문이 드르륵열리엿습니다

# 새해맛는멍텅구리 (二)

화국녀왕

귀속이야기 (1)

몰려가는길에 (2)

대관식파 동궁던허 (3)

# 귀일혼帆船 【三】

李金桐作 李靑田畵

온방안사람의 무심히 바라보던 눈은 유심한눈으로 변하게되엿다

그는 잠간놋안는 아무말도내지부하고 입술만을 바르르떨다가 겨우『무 무엇?……』하고 소리를질럿다

이간단한 부르짓는소리에는 복잡한감정이 들어잇는것을볼수잇다

그는 이문화청년이란 말에엇더한 분로를 늣기엿것이다 물론 그상대자가 문화청년이라고부르는 태도가 조롱뎍이엇고 무심코 낸것은아니엿다 그러말이 그날그직석에서뿐이아니오 그가 김이란청년을조롱하던지 또는 서로 등쟁을하다가 자긔의 형세가 리롭지못할경우이면 대개는『문화청년이 생각하는것과 운동선상(運動線上)에서 실디로일하는누리의 생각은 달른말이야……』하고 그대로 옥눌밤에도 김의 되잔케 침묵직히는것이 뭇이놀리어서 그런 조롱바든것이엇다

이러케 조롱바든 김의 자존심은 차올라오는 분한마음을 참을 여유가업섯든것이다 그의 희프른얼골이 쌁아케 변한것을 바라보든 상대의청년의 얼골도 피、색된것가티 붉어진다 형세가 자못 위태하다

『이것! 웨들이래?……』

『그만두게들!……』

『그러지말고 어서 하지 자네차례니……』

하고 나만흔청년이 김을권한다

『문화청년이란말이 엇대서 그래? 문화를 조화하고 나히 청년이니까 문화청년이라해도 망발은 아니겟지요?』

『그러면 청년문사(靑年文士)철은예술가라고 햇드면조흘번햇네그려!』

하고 상대자가 또비꼬다

김의얼골은 붉엇든것이 다시희어진다

『고만두게……예술가는 분생활(氣分生活)을한다니까……』

하고 흰옷입은청년이 또 꼴을올린다

『참으로 긔분생활하는이는 좀 달다!그러케 다들것이뭐야!』

한청년이 또 책망한다

방안의공긔는 자못 긴장하여젓다

이외가티 각각으로 변하여가는 위험상태에 녀정들은 겁이나는것처럼 눈이 휘둥굴하여진다 만류하지도못하고 평편한 살풍경이다

김은 변안간 주먹을 놉히들어 식탁을 힘것친다 주먹이 식탁에 부드쳐자 그우에노혓든 음식그릇이 우르르 곤두질을친다 그럿고 그릇 쌔여지는소리가『와직근』하고난다

그는 독등뎡던주먹을 다시우으로 번적놉히며

『문화청년이 엇쨋단말이냐 긔분생활이 엇쨋단말이야 문화청년이란것이 납부단말이냐 아니다마는 사람을 조롱해보라는 네말보가납부단말이다 웨사람을 놀려보니!』

하고 김은 소리를질는다

이러케 부르지지는동안에 어느듯 그의 주먹미테식탁이 밝아케저젓다

『저것봐! 피!피!』

하고 여러사람은 부르짓는다 그들은 창ㅅ히 피싸슬것을찻는다

김은 주먹으로 책상을친다는것이 큐리잔을쌔트리엇다 큐리조각에 손가락이 비어지고말엇다

피를본 김은 미친듯 벌덕이러서며

『여보게들! 참놀게! 사람을 조롱하는 버릇을버려!』

하고는 획 나아가라한다 손에서는 피가 그치지안코 흘는다

『커피좀봐! 어이……』

하는 녀자의 겁먹은 부르지짐에 응하야『거긔좀 게세요』하고 손수건으로 손을 봇드러 매는이가잇다 그는목도리로 머리를 싸매고오던 김의것헤 안젓든 녀자엇다

『커사람 미첫나? 웨저모양이야?』

『술데업시 피싸지 흘리게되엇스니……』

하고잣잣고 잇던 다른청년들도 김의경솔한태도를 책망하듯 말한다

『술데업시? 내의감정을 위해서는말이다 참나의 귀여운 피를참아서 속에서 썩이는것보다 이러케 흘리는것이 유쾌하단말이다 너이들이 내속을아늬? 나는 내의감정대로 흘리는 피이니까 리해를초월한피란말이야 입만가서 무엇? 불공평、긔회、파괴? 아무것도 모르는 속한(俗漢)들아!』

하고 거의동여진손을 색리치고 그만방으로 나아가바린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一日 正午 一七、八 最低 一二、六
◇比較 一日
◇日出前七時四七 晝間九時三八
◇日入後五時二五 夜間一四時二二

# 平壤卅七個所 金融組合 貸付金

平安南道內三十七個所金融組合의昨年末外지의貸付金額末은左와如하다더라

| 組合 | 金額 |
|---|---|
| 大同 | 二三四、三五六 |
| 德川 | 一四六、四七五 |
| 安州 | 一九九、三七三 |
| 江西 | 一六八、八四二 |
| [illegible]波 | 一五八、八三八 |
| 順川 | 一三三、〇五七 |
| 龍岡 | 一三三、六二一 |
| 陽德 | 一一一、〇三八 |
| 寧遠 | 九九、七三三 |
| 江東 | 一五八、八六六 |
| 肅川 | 一六九、九一七 |
| 中和 | 二〇四、五四五 |
| 永柔 | 一七三、五三九 |
| 順安 | 一四五、五四六 |
| 价川 | 一七二、五五一 |
| 孟山 | 九九、八七〇 |
| 成川 | 一七二、七一〇 |
| [illegible] | 一一九、六六九 |
| 祥原 | 一二九、六三六 |
| 新倉 | 一三五、三〇六 |
| 立石 | 一一六、八九七 |
| 舍人 | 一二一、三六〇 |
| 北倉 | 一〇四、八四三 |
| 漢川 | 一〇七、九〇六 |
| 三和 | 一八七、〇九六 |
| 九龍 | 一一七、〇〇八 |
| [illegible] | 一一八、〇一五 |
| 大平 | 一二八、二五二 |
| 三登 | 八〇、七六三 |
| [illegible] | 九八、九七二 |
| [illegible] | 一〇六、〇二七 |
| [illegible] | 八七、五五〇 |
| 平壤南 | 三九二、一四三 |
| 平壤北 | 四〇三、二五六 |
| 鎭南浦 | 三二四、一〇五 |

# 百一稅過多로 尙州魚物商大會

## 面當局不公平한行政 問題는漸次擴大中

慶北尙州郡魚物商들은百一稅가他商界보다越等하기甚함으로이를不平으로하야幾年前부터問題가되여나려오든바客月二十七日市場崔春明氏家에서在尙各魚物商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其理由를들으면元來尙州市場稅(百一稅)는年三千五百圓인바魚物商界에限하야年九百五十圓을仲商三人小賣商二十餘人에分擔하게되면每市二圓以上인바此를中國人商界及日本人商界의賣買高에比較하면五倍以上이나되며且近邑金泉市場은三南大市場으로一年魚物賣買高가尙州의五倍임에도不拘하고百一稅가겨우六百圓인데尙州賣買高에比하야五分의一도못되는데에九百五十圓은넘우甚한稅金이며그러지안허도모든方面으로經濟的壓迫이甚한朝鮮人商界에九百五十圓이란巨額을徵收하고中國人及日本人은每市에幾百圓以上千餘圓內外의賣買高가잇슴에도不拘하고每市에百一稅를五十錢內外를徵收함은무엇보다도面行政上不公平하다하야이를均等히(朝、中、日三商界賣買高에比例하야分擔할것)하자는意味이라는데大會에는仲商及小賣商員三十餘人이會集하야異口同聲으로다음과가튼決議와面當局에交涉하기爲하야交涉委員三人을選擧하고一切問題를交涉委員三人에게一任한後散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一切稅金(百一稅)에對한不公平한事를撤하야交涉하되公平分擔을要求할일

一、萬一面當局者가不應할時는郡又는道當局外지라도初志를貫徹할일

一、面當局交涉委員 李宗鉉 朴寅煥 崔寮明

## 『上命이니 改善할수업소』

面長 朴梃漢氏談

慶北尙州郡魚物商들이 稅金(百一稅)이多大함을抗議하는外라當局者에對하야交涉委員外지選定하야魚物商大會를開催하고初志를貫徹키爲하야交涉委員外지選定하엿다함은別項報道와如하거니와客月十八日에交涉委員李宗鉉朴寅煥崔寮明三氏가面長朴梃漢氏를訪問하고稅金(百一稅)徵收에對한不公平한 말을하야一一히問答하엿든바朴面長의答도事實인즉公平치는못하나郡當局의指揮·從함에不過하니自己로는改善치못하겟다함으로更히郡當局에交涉하기로하엿다하며徵收負擔의不平外에도徵收面吏員의無理한行動이만타하야問題는漸漸擴大되리라는바一般市民은매우注目中이며이에對하야交涉委員某氏는말하더라

## 『萬一이면 不納同盟 도사양안소』

交涉委員 某氏談

事實인즉今般이問題가벌서幾年前부터잇섯지마는今年이나엇덜가?明年이나엇덜가?하야오날外지오게되엇습니다이런不平을滿足치못하야一圓式을더올리엇스니經濟的壓迫이甚한우리로서야살아갈수가잇슴닛가?그럼으로우리는朝鮮人 中國人 日本人할것업시商業賣買高의比例로稅金을納付하자는意味이며別다른意思는업습니다 目下每市의賣買高로보더래도中國人들은少하여도五百圓以上千圓外지되는데에도不拘하고不過四十錢又는五十錢을徵收하고우리魚物商에게는二圓以上을負擔식히니엇지감당할수가잇슴닛가?萬一面當局者가道外지되라도끗까지貫徹지못하면不納同盟이라도할수밧게업지안흠닛가?그리하면自然訴訟外지起할줄로생각하고잇습니다云云(尙州)

# 咸南의年中 傳染病者 五四七名

咸南道에對한昨年度의傳染病者數를記錄에依한즉窒扶斯二〇三 赤痢一五一 바라디부쓰二七 發疹디부쓰 디프데리야二七 猩紅熱三八 痘瘡九五 累計五四七人이라더라(元山)

# 井邑七寶에 互扶靑年創立

## 宣言規約制定

全北井邑郡七寶面靑年界에서는近來同地方에靑年團體업는것을遺憾으로녁이든바今般當地靑年有志諸氏의發起로今月十九日下午六時에同地武城書院內에서金熔氏의司會로互扶靑年會創立總會를開하고趣旨說明과規約通過가잇슨後左記事項을滿場一致로可決하고同十二時頃에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井邑)

◇宣言及綱領

一、우리는大衆을爲하야新社會를建設하자

一、우리는大衆을爲하야新文明을輸入하자

一、우리는最後外지正義에殉死하자

# 文盲打破부르짓고 創立!復活!發展!

## 各地의夜學狀況

### 江東勞働夜學

平南江東郡江東面堂舍里에잇는江東勞働靑年會에서는三年前부터勞働夜學을經營하여오는바近間에至하여는더욱盛況을呈하야女子部外지設置하엿는데現男子部는五十餘名에達하고女子部는二十餘名에達하는바女子部는斐琪福讓이責任敎授하며男子部는同會委員인金海萬、金洪采、朴宗錫氏等과外小年으로金方九、金任祚兩君도補助敎授한다는바學生의成績도講師의熱誠에依하야日就月將한다더라(江東)

### 海平勞働夜學 當地普校에서

善山郡海平公立普通學校에서는農閑期를利用하야無産兒童文盲을打破코저海平靑年會後援으로海平勞働夜學會를組織하고每夜熱誠으로敎授한다는데每夜通學生이七十餘名이나되고責任講師는金玉振、金允卓、李鍾乙等諸氏라더라(龜尾)

### 和歌山夜學

日本和歌山縣日高郡御坊町에잇는東和會支部에서는昨年十二月十五日午前十時에同會館內에서定期總會를맛친後直時創立一週年紀念式을擧行하고多數會員들의意味深長한感想談이잇슨後同午後四時에閉會하엿는데同會會長金容麟氏及幹部金鍾英崔鐘祚金小道諸氏의誠心誠意로同御坊町日出紡績株式會社의講堂을빌어女子夜學會를設立하고그동안만흔人才를養成하는터인데同夜學會가設立된후로발서夜學生이百餘名에達하며將次好成績을보리라더라

### 新幕基少創立

京義線新幕驛前에는千餘戶가잇스나數百의少年들이모힐機關이업서一般有志들이만흔遺憾으로녁이든바今番에新幕耶蘇敎禮拜堂에서基督少年會를創立하엿는데會員은二十餘名이며任員을選定하엿는데會長高漢敎、副會長李元馥 總務崔聖建 書記趙敏奎 朴麗緖 衛生金永徹 高浩根 金寶斗諸君이被選되엿다더라(新幕)

# 六臺中事組定總

咸南北靑郡六臺牛車勞働組合에서는客月二十三日同組合事務所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金永基君의司會下에開會하고組合員點名經過報告가잇슨뒤에新進事講究에들어가底賃引上、隣近組合과의連絡關聯等決議가잇고다시委員改選이잇슨뒤에往秋新興郡方面에가서牛車勞働을하다가不幸히牛車에重傷을當하고方今悲慘中에잇는組合員安雲國君을同情하는意味로一般은貧囊을기우려서約十四圓을補助하엿다하며被選된委員은左와갓다더라

◇新任委員 ▲執行委員長李勳浩▲執行委員金鼎奎 尹壽鴻 安雲國 南元國 黃棟根▲常務執行委員朱實云 金炎基(盤武)

# 兵營公普 學年延長運動

面民大會를開催

全南康津兵營에는兒童敎育機關이라고는오즉外지五六學年制가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여오든바客月二十八日에面民大會를當地公普校內에서面長李南在氏司會로開催하고諸般討議가잇슨後議長金容善氏를推薦하야滿場一致可決로學年延長期成會를組織하야左와如히委員及評議員을選定하고規約及綱領은今二日同會總會에서作成하기로하엿다더라(兵營)

◇決議事項

一、諸般事業進行의件

二、執行委員選擧의件

◇委員의氏名 ▲常務委員金鎬▲文部李鍾壽▲財務部金億沃▲外交部金鉀述 金偉炯 金東植 金相基

# 沙川公普 學年延長運動

江陵郡沙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客月二十五日에本校當局者外有志諸氏와의聯合懇談會를開하고學年延長에對한協議를하고陳情書를道當局에提出하엿다는데本校는江陵五校中設立된지第一古인比較的校運이날로發展됨을따라一般의向學熱과學生의數가增加되는狀態이나아즉四年制에二學級으로困難이莫甚할뿐아니라여러가지關係로學年延長을必要를늣기든터에前朴知事時에郡當局으로부터江陵普校外四校에六年制를道當局에申請한結果新里 玉溪 邱山三校는旣히延長되엿슴으로沙川校도來春에는延長되리라는自信을하여오든바昨年十一月新任朴知事의來江機會에다시陳情하엿든바얼마前에道로부터豫算不足으로延長不能이라는報를듯고當局責任者와有志側에서는郡當局과協力하야熱烈히運動을開始하고今春內로實現식히고저進行中이라는데今般問題는實로本校運命에關係되리만큼注目된다더라(江陵)

# 統營天道講話

二月八日부터一週間

統營天道敎宗理院에서는來二月八日부터一週間同敎堂內에서慶南道會講師를開催하기로되어方在準備中이라는데講師는中央宗理院으로부터李敦化氏를招聘하리라하며慶南區內에一般敎人은勿論이어니와社會人士로도人乃天眞理을알고저하는이는歡迎한다더라(統營)

# 沙里飛虎定總

來五日스케트大會開催

京義線沙里院에잇는飛虎團은體育界에만흔活動과貢獻이잇섯슴은一般이共知하는事實인바客月二十八日午後七時에沙里院大劇商會에서定期總會를開하고任員을改選하고來五日에는全沙里院스케트大會를開催한다는데一般人士의贊助를가지하고多數의參加를希望한다더라(沙里院)

# 江陵南川 堤防工事

## 本年中着手?

江陵邑南大川은每年霖期만되면洪水가氾濫하야莫大한被害가잇슬뿐아니라恒常危機를不免하게되야一般住民에게不安을주게되야當邑生命財産을左右하리만큼重大問題임으로오래동안懸案中이든南大川堤防問題는總工費四萬圓中國庫補助金一萬八千圓을하고二千圓負擔金一萬八千圓을하고其中八千圓은江陵面에서銀行起債하고二萬圓은民間寄附로分配할터인데各面에外지補助를벗을는지는아즉考慮中이나何如間今年中에는工事를着手하리라더라(江陵)

# 大邱

大邱府京町二丁目七二 綢緞布帛商 車永壽

大邱南町八八 順天旅館 主 李福熙

大邱府本町二丁目四八 海陸物產委託販賣 主任 李寶連 長電話一九五番

大邱府元町二丁目 鐵道運送陸海運搬 朝日運送部 主 李命根 電話四六三番

大邱府上西町 大邱妓生券番 電話九六九番

大邱府市場町一九 各種特產고무靴 都賣部 朴英秀

大邱府錦町一丁目 大邱穀物株式會社 電話長八二〇番 九六三番 六三〇番 市場專用八〇一番

大邱衡平社 社長 金慶三

大邱府南山町 韓潤和

大邱府本町二丁目五五 金銀美術品製作所 金邱堂 主 金寅浩

達城郡城西面 事務所 職員一同

大邱府南城町 藥種商 亞一商會 主 金乃明

大邱府南城町 令市振興會

大邱府東千代田町三一 朝日旅館 主 崔友石 電二七一番

慶山郡慶山面三南洞 安炳吉

達城郡論工面 面長 李 副記 徐 書記 宋 書記 金 財記 裵 書記 李 技手 鄭

大邱府西城町 蓬萊湯

大邱府本町二丁目 綢緞布木商 白基祥

大邱府市場町 布帛洋服商 金潤鎬

大邱府本町一丁目 金銀細工 裵裕亨

大邱府市場町一五 綢緞布帛 李泰壽

大邱府新町 米穀雜穀都散賣 尹致道

大邱府本町三丁目 金子麟

大邱府本町一丁目 慶興洋靴店 主 李祥五

大邱府京町一丁目一四 綢緞布木洋品 李圭燮

達城郡瑜伽面 職員一同

大邱府大和町 韓城洋服店 主 李鋪勳

大邱府東城町 朝鮮帳簿製造所

大邱府本町二丁目五〇 物產客主 安極善

大邱府西城町二丁目七 司法代書 林聖度

大邱府東城町 李根昌

大邱府新町 日新商店 電話六四一

慶山郡珍良面松林洞 製紙共同販賣所

慶山郡慈仁面西部洞 面協議員 金秉河

慶山郡南山面事務所 面長 朴在順 外職員一同

慶山郡慶山面三南洞 有志 金士淑

慶山郡珍良面新村洞 學務委員 金鍾昊

慶山郡南川面事務所 面長 具 書記 石 會計 世

慶山朝鮮日報分局 顧問 安炳圭

大邱商業會議所 會頭 張稷相

達城郡壽城面上洞 秦相龍

達城郡花園面 事務所職員一同

達城郡河濱面 事務所職員一同

達城郡月背面 事務所職員一同

達城郡廳 職員一同

大邱府 高等普通學校 職員一同

大邱 師範學校 職員一同

大邱府錦町二丁目 西洋料理 福壽軒 電話六三九番

大邱府 商業學校 職員一同

達城郡壽城面凡物洞 李載雨

大邱府明治町 尙繼道

大邱府明治町二丁目 金榮台

大邱府西城町 李柄學

大邱府南町 徐喆圭 電話一〇八八番

大邱府前町 李花旅館 溫突沐浴、電話等其他完全設備

大邱府南山町二四一 朴載一

大邱府下西町 李章雨

大邱府本町二丁目 齒科醫院 院長 金洪達

大邱府錦町四二 辯護士 許瑨 長電話二三三番 振替京城二五三六九番

大邱府內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大邱府京町一丁目 辯護士 梁大卿 電話四〇三番

大邱府京町 辯護士 柳垶熙 電話一九三番

大邱府京町二丁目 辯護士 朴海克 電話一〇三二番

大邱府市場町 明太貿易 金和壹

大邱府西城町 穀物貿易 精米薪炭 許武烈

大邱府本町一丁目 各種時計 金銀眼鏡商 永信堂時計店 主 金鎔泰

大邱府錦町一丁目十三 海昌運送部 主 金洪珍

慶山郡龜尾面事務所 金載翊

慶山郡龜尾面事務所 面長 金升東

慶山郡慶山面三南洞 綢緞布木商 李德三

慶山郡慶山面慶東側 司法代書人 行政 李相鎭

慶山郡慶山面三南洞 面協議員 李正勳

慶山郡慶山面三北洞 司法代書人 行政 李相澈

慶山郡慶山面三北洞 林業技手 林中寅

慶山郡慶山面三南洞 曺英煥

慶山郡押梁面店村洞 面協議員 安東烈

慶山郡慈仁面校村洞 面協議員 石濟元

慶山郡慈仁面西部洞 穀物貿易商 石容紀

慶山郡慈仁面東部洞 穀物貿易商 三益商會

慶山郡慶山面玉谷洞 鄭兌淵

慶山郡龜尾面元亭洞 金銀旅館 主 朴玟聲

大邱警察署 署長 岩井涅作

大邱府本町 漢南印刷所

達城郡解顏面事務所 南相鎭外一同

大邱府京町 李東玉

大邱府上西町 李琓珪

大邱府新町 金熙國

朝鮮耶蘇教南城町禮拜堂 牧師 李萬集

大邱府東千代田町 活版石版 田中印刷所

大邱府南山町一六 朴炳奎 電一〇〇三

慶山郡慶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山郡慈仁面北四洞 面協議員 張在洙

慶山郡慈仁面金融組合 職員一同

慶山郡慶山面西上洞 海陸物產委託販賣商 姜文佑

慶山金融組合 理事 田中晋

京釜線龜尾驛前 穀物貿易商 金山社

慶山郡押梁面事務所 職員一同

達城郡城北面東邊洞二七二 具慶會

大邱府市場北通二三 綢緞布木商 金貞壽

大邱府七星町五六一 慶北鐵工所 主 李敬斗

大邱府錦町 海陸物產委托販賣 金成商會 電話七九三番

大邱府市場北通 米雜穀輸出入商 太弓商店 電話長一六七番 六七二番 穀物市場特設長七八六番

達城郡嘉昌面 金敎式

大邱府上西町 府協議員 金斗性

大邱府南城町 三光醫院 醫師 金顯敬 電話八三三番

大邱銀行 支配人代理 鄭泰稷

大邱銀行 支配人代理 安啓煥

大邱 運送者組合 運送業組合

達城郡公山面 桐華寺

大邱府市場町 鐵物貿易委托 永興社

大邱府南城町八八 藥草材藥種貿易販賣 秦昌乾材局 主 申泰文

大邱府南城町 大邱紙物商會 主 金弄春 長電話六八二番 振替京城一〇七八六番

大邱府東城町三丁目 各種笠子貿易販賣商 製造業 許鎬商店 主 許鎬

大邱府明治町二丁目 大邱洋襪所 主 禹且學

大邱府南城町八九 漢藥種商 金弘祖

大邱府南城町八六 藥草唐草材貿易商 正安號乾材局 主 金鍾烈

大邱府本町二丁目四五番地 海陸物產委托販賣及貿易商 主任 孫潤五 幹事 金周煥

大邱府南城町九二 人蔘鹿茸唐草材商 嶺一堂大藥房 主 李明直

大邱府南城町 復陽堂醫院 金濟 電話八六

大邱府本町一丁目四九 時計眼鏡附屬品 太陽時計店 主 姜淡哲

大邱府北內町二三 米穀委托 德合商店 電長一〇七〇(市用) 九一一(事用)

大邱府大和町六四 穀物貿易 青邱商會 電話一一〇一 振替口座京城一〇六九

大邱驛前 元昌運送店 朴埈永 電話三七六番

大邱銀行 專務取締役 李相麟

大邱布木商組合

大邱府京町二丁目 綢緞布木 泰昌商店 主 李根 長電話八九四番

大邱府京町一丁目一〇二〇 朝鮮紙製造大賣 一新商店 主 曺禹贊

大邱府鳳山町 主 崔載昊

大邱府京町三丁目 辯護士 全炳夏 長電話九八二番

慶山郡慶山面事務所 面長 金宅鎣 外職員一同

大邱府錦町 朝鮮運送株式會社承認店 朝鮮通運組合加盟店 大元運送店主 姜元植 電話八三五番

大邱府京町一丁目 金成國醫院 電話一二〇一番

大邱府京町一丁目 好生堂醫院 醫師 金鍾遠 電話四一〇番

大邱府京町二丁目 救世醫院 醫師 李在榮 電話五七〇番

大邱府錦町二七 商信社製油部 製油肥料及原料貿易 裵永悳 電話一八四番 振替京城一四六八五番

大邱醫師會

大邱金曜會

大邱府市場町 昌濟醫院 醫師 金昌林 電話一一八八番

大邱府大和町六三 穀物貿易委托 大成商會 長電話八六五番 振替京城四六三九番

大邱府京町一丁目 河海旅館 主 姜建中 電話六九六番

慶山郡廳 慶山農會 慶山畜產組合 慶山森林組合 慶山水利組合

慶山郡南山面慶洞 面協議員 金斗南

大邱府市場町 大邱ゴム商會 電話二一六五番

大邱府市場町 官鹽原鹽再製鹽及大海陸產 向信商店 主任 姜致雲 電話二八二番 振替京城一三九九七番

大邱府錦町三七 一般代書 保險代理 證券取扱 玄黃舍 舍主 玄永健 電話五九一番 振替京城一〇三五六番

大邱府錦町 邱上商店 主 崔龍瑞 電話一〇九八番

大邱府南城町 仁山精米所 主 文永福 徐錫漢

達城郡達城面 面長 徐祥數 書記 技手 技手補 李相秦 李圭祥 李鐘七 崔侃敎 秋敎東 金相敎 金敎敎 姜壽能 韓主夏

慶山青年會役員 張漢物 朴能俊 杜龍福 白富興 金基陽 安漆雙 金德辰 安有武 安牙洙 李福文

喜道普通學校 校長 黑木源二 副校監 金炳旭 教員 金蓮洙 崔斗澣 朱德根 李在演 鄭泰龍 朴道煥 崔德溶 金文根 徐劍周 石丸逸子

大邱府大和町 穀物商 芳德商會 長電話一〇五三番 二七二番 市場專用九八九番

大邱府京町一丁目 鮮桂都散賣商 金永敏

大邱府本町二丁目 綢緞布木婚具一切各種洋品 合名會社 東日商會 電話三七九番

大邱府南城町 藥草唐草材都散賣 德載藥房 主 金宗洙

大邱府東城町三丁目 東亞旅館 長電話三二四番

大邱府村上町四八 一松旅館 電話九〇五番

大邱府京町二丁目 鮮南皮革店

大邱府東城町三丁目 張仁煥 電話六二一

普天教慶北眞正院 院長 金奎燦

大邱上西町五〇 道評議員 柳廷洛

大邱府前町一六 辯護士 孫致殷 電話四八一番

大邱府南城町二〇 活版石版 文化堂印刷所 主 李義斗

大邱府南城町 書籍各種文房具 總督府敎科書販賣 嶠南書院 主 金炳禧 振替京城八一六〇番

大邱穀物信託株式會社 大邱穀物商組合 事務室電話六六八

大邱京町一丁目二十二番地 改良靴洋靴 革靴朝鮮靴 朝鮮皮靴原料 牛皮貿易商 業盛商店

大邱府本町二丁目 全洪官商店 電話三四六番 振替口座京城八五七〇番

大邱府北內町一四 穀物貿易委託賣買 普成商會 電話長二五四番 四九二番 市場專用二七四番 大邱府南城町 精米部 電話一一九八番

朝陽無盡株式會社 專務 許億 電話九七三番

大邱府東城町三丁目 青邱洋靴店 主 李貴根

大邱府京町二丁目九二 綢緞布木商 羅在洙 電話六六九番

大邱府本町一丁目八三 毛物婚具 雜貨綢紗製造 蚊帳製造 都散賣 許泳商店 電話取次一二二番

大邱府本町二丁目六八 朝鮮笠帽及裝飾製造 都賣 德新商店 主 金在根

喪中欠禮 大邱府西千代田町 鄭麟基

喪中欠禮 慶南陜川郡草溪 盧浩容

大邱西城町一丁目 李相岳

大邱正安堂藥院 府協議員 金正悟

大邱 復明女子普通學校 大邱復明幼稚園 校主 金蔚山 職員一同

大邱府達城町一一 綿織物製造販賣、漂白 染色、一切衣服染 染織附屬品販賣 東洋染織所 電話一一 振替口座京城一四四七

慶北道廳食堂 職員一同

大邱府京町二丁目 朝鮮料理 賞春園 主 康基順 電話一一三五

片倉製絲株式會社大邱製絲所 山十製絲株式會社大邱製絲所 朝鮮生絲株式會社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職員一同

大邱府京町二丁目 徐昌圭 電話八一一番

大邱府南町一三六 辯護士咸升鎬 法律事務所 電話一〇二九番

大邱明治町二丁目 中樞院參議 徐丙朝

大邱 高丙敎

株式會社慶一銀行 頭取 張吉相 電六〇三

喪中欠禮 大邱府南城町 徐丙周